

한국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의 길잡이

프랜차이즈 월드

2016 Vol.16

KFCEO 명품과정을 가다

제3기 KFCEO 명품과정 수료식

핫이슈

희망찬 2016년 새롭게 뛴재!

1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배달라이더협회 MOU 체결

스포트라이트

제1회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2015 나눔의 송년회 개최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 성료

2015 글로벌 프랜차이즈 포럼 개최

글로벌 성공 브랜드

(주)후스타일 <요거베리>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회원사 탐방

(주)아로마무역 <양키캔들>

(주)또봉IF&S <또봉이 통닭>

힐링스토리

사회봉사위원회 나눔활동

제1회 KFCEO 친선 골프대회

Special Feature

2016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제36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2016.3.10(목)~3.12(토) 3일간
The 36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6
SETEC
3호선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컨벤션센터)

www.babos.co.kr
가맹문의 1588-5592

우리동네 감성충전소 Collabo Cafe

babo's

바보스 3.8
KKULDAK
Mr. 편장

Collabo Cafe

함께하면 휴식이 되는
우리동네 감성 충전소... 바보스

바보스 메뉴는 3,800원부터~

3,800원

버터갈릭포테이토
치즈&고구마볼
스노우카사바칩
그린샐러드

4,900원

가라아케
소세지&포테이토
닭가슴살샐러드
반전조노가리



바보스 전속모델
탤런트 이 훈



Since 1902

캐리어에어컨

캐리어에어컨은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실천합니다.

캐리어에어컨은 2011년부터 '행복나눔 N' 캠페인에 참여하며, 판매 수익 중 1%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애인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m롱편치 허리케인 바람으로 당신의 여름을 시원하게

독립 공기청정, 독립 제습, 에어컨, 난방기
4가지 제품을 따로 구매할 필요없이,
1대로 사계절 집안공기를 책임지는

캐리어 '올시즌' 파워 에어컨



핑거플러스

업소용



제습기



4가지 독립 기능을 1대로! 이서진 '올시즌' 파워 에어컨

독립 공기청정: iFD필터(전자해파필터)로 바이러스까지 걸러주며, 자외선 램프 가동시는 제품내부의 바이러스도 제거
독립 제습: 1일 전기료 420원 이내에서 사용 가능 (자사 시험 기준, 1일 8시간 사용 기준, 월 사용량 201~300Kw 가정 기준)

(해당 모델에 한함)

캐리어 주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 캐리어 홈페이지 : www.carrier.co.kr

■ 구입문의 : 1588-8855

■ 서비스문의 : 1588-8866

캐리어 에어컨 전문 상담 (프랜차이즈 전문) 문의 및 캐리어 카운셀러 판매원 모집 | 문의 전화: 본사 특판영업팀 02-3416-4801

2015 한국프랜차이즈대상

16th KOREA FRANCHISE BUSINESS AWARDS

대통령표창



Mom's TOUCH
CHICKEN & BURGER

맘스터치

momstouch.co.kr

국무총리표창



국수나무
namuya.co.kr



커브스
curveskorea.co.kr



영렘브란트코리아
youngrembrandts.co.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외식업 피자마루
pizzamaru.co.kr



외식업 용우동
yongwoodong.co.kr



등반성장 바보스 babo's
babos.co.kr



우수가맹점
원할머니보쌈&족발_녹번점
bossam.co.kr



개인공로
짐보리 대표이사 박기영
gymboree.co.kr

Korea Franchise Associ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해외진출
바비박스
bobbybox.co.kr



Chef's Noodle
셰프의 국수점

해외진출
셰프의국수점
chefguksoo.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외식업
남다른김자장
namzat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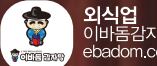


연구개발&정보화
치어스
cheerskorea.com



신생브랜드
바르다김선생
teacherkim.co.kr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



외식업
이바돔김자장
ebadom.com



외식업
조식덕복이
jawsfood.com



외식업
그램그램
gram-gram.com



외식업
셀렉토커피
selecto.co.kr



도소매업
못된고양이
naughtycat.co.kr



연구개발&정보화
엘리펍
alleypub.com



연구개발&정보화
지호한방삼계탕
jinohfood.com



신생브랜드
스트릿쵸러스
streetchurros.com



신생브랜드
풀인채
pulpchae.com

중앙일보 대표이사상



외식업
바푸리
bapuri.co.kr



등반성장
채선당
chaesundang.co.kr



등반성장
이화수전통육개장
ihwasoo.com



해외진출
커피베이
coffee-bay.co.kr



우수가맹점
코바코_인산총지점
cobaco.com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등기업! 일등브랜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0만 가맹점사업자와 124만 산업종사자의 대표단체입니다.

2016

The 36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The 36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6

국내최대규모!
부스·전시관매우!
국내최대규모!

국내최대규모!

제36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업체 大모집

다양한 업종, 다양한 브랜드,
창업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2016 제36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The 36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6
- 기간 : 2016. 3. 10(목) ~ 3. 12(토)
- 장소 : SETEC(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 주최 및 주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후원(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 참가규모 및 문의

- 200여 브랜드, 373개 부스
- 박람회 홈페이지(www.kfaexpo.kr)에서 참가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업기획팀
02.3471.8135~8 / 내선 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0만 가맹점사업자와
124만 산업종사자의 대표단체입니다.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www.ikfa.or.kr

137-67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동, 월한빌딩 2층(구: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1))
TEL.02.3471.8135~8 FAX.02.3471.8139

프랜차이즈 월드 Vol.16

한국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의 길잡이

- 6 윤리강령
9 Letter 조동민 회장 권두언

Issue & People

- 10 News Lounge 협회 뉴스와 행사
20 특별기획 2016년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산업
24 프랜차이즈대상 현장을 가다 2015 프랜차이즈 산업대상 시상식
28 핫이슈 I 다사다난한 2015년은 가고, 희망찬 2016년 새롭게 뛰자
32 핫이슈 II 1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34 핫이슈 III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배달라이더협회 MOU 체결
36 스포트라이트 I 제1회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38 스포트라이트 II 2015 나눔의 송년회 개최
43 스포트라이트 III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 성료
48 스포트라이트 IV 2015 글로벌 프랜차이즈 포럼 개최
50 KFCEO 명품과정을 가다 KFCEO 명품과정 3기 수료식 성료
58 글로벌 성공 브랜드 (주)후스타일 <요거베리>
60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64 회원사 탐방 (주)아로마무역 <양키캔들>
(주)또봉IF&S <또봉이통닭>



프랜차이즈월드 Vol.16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인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발행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빌딩 2층

전화 02 3471 8135~8 팩스 02 3471 8139

디렉터/전략홍보팀 전우진 국장

기획/취재/편집/디자인/창업미디어그룹 월간<창업&프랜차이즈>

제판/인쇄/(주)신화프린팅코아퍼레이션

판매가 10,000원

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 설명]

2016년 프랜차이즈산업의
비전 만들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글로벌 진출 원년 선포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한 해였다. 2016년의 어두운 경기전망 가운데서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 가능성을 보는 배경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하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주력하는 한 해가 되리라 한다.

Contents

Education & Culture

- 66 지상강좌 조용근 · 서민교 · 김선진 · 이성훈
- 74 힐링스토리 상록보육원 · 제1회 KFCEO 친선골프대회
- 76 그곳에 가다 과거의 중국과 현대의 중국을 동시에 '시안(西安)'
- 80 CEO LIBRARY (주)금탑프랜차이즈 최성수 대표 추천 『히든CEO』



탄 생

당장이라도 찢고 뚫을 기세다.
새로 태어난 여린 잎은
누구도 손 댈수 없는 곳에서
위태위태 살살 잘 커간다.

여린 잎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건 아닌가 싶다.
이렇게라도 변해서 여린 잎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글 · 사진 일간(창업&프랜차이즈)DB

News Lounge

- 82 News Lounge 회원사 행사 및 소식
- 90 Education 교육 일정
- 92 축하합니다! 프랜차이즈지도사 · 슈퍼바이저 합격자
- 94 Schedule 협회 일정 및 협회장 동정
- 96 Membership 신규회원 가입 현황
- 98 Membership 회원가입 및 모집작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개정 2013. 03. 05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업과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 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건강(행복)증진과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 기본강령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과의 상생을 통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행동지침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익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안전한 서비스 및 제품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사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 가.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 나.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운영능력 향상 및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III.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윤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나.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과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새로운 도전

징기스칸 전사 500人 육성 프로젝트

KFCEO 4기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신성장동력 산업인 프랜차이즈산업의 글로벌 해외 진출 및
최고경영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KFCEO 교육과정] 4기를 모집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영환경에 발맞춰
경영자들이 전략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KFCEO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과 강사진으로 구성해
우리 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물론,
인적 네트워킹의 기회까지 제공해 한 단계 더 진일보하여
타 과정과는 차별화된 산업계 및 학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K프랜차이즈 'KFCEO 교육과정' 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량있는 CEO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교육명 KFCEO 교육과정
- 대상자 프랜차이즈 기업 CEO 및 임원급
관련 기업 CEO 및 임원급
- 모집인원 50명 내외
- 교육기간 2016년 3월 7일~ 6월 27일(16주,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
- 교육비 500만원(회원사 30% 할인) ※식비, 교재비, 문화행사비 포함, 해외 연수비 일부.
- 장소 서울팔래스호텔(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 주최 및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홈페이지 www.ikfa.or.kr
- 문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70-7919-4170) 담당자 : 우호운 대리

2016년 새해에도 힘차게 전진합시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지나고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시작한 내수침체 및 경기불황이 채 극복되기도 전에 메르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해 그야말로 우리 경제와 산업 전 분야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어려움이 심화됐으며, 프랜차이즈 가맹 역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깊었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나쁘고 불황도 계속됐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자본력, 기술력과 지속적으로 체계화시킨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2~3년간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세계 각국에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과 역량을 알리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물론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에는 한류(韓流)의 영향이 지대하지만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 협회가 지난해 K-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도 적잖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더욱 더 선진적인 경영노하우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다채롭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자 및 임직원들에게 수준별, 직급별 맞춤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과 함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만들어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세분화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프랜차이즈 명품 CEO과정'을 마련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구성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물론 인적 네트워킹의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또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 업무 제휴도 적극 추진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노력과 지원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제후와 협력은 우리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회원사 및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임직원과 관련 종사자 등 프랜차이즈산업인께서도 우리 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력이 모일 때 우리가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2016년 새해는 丙申年으로,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원숭이는 지혜와 열정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프랜차이즈인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올 한 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프랜차이즈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조동민** 배상



NEWS LOUNG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외식산업경영학회 외식프랜차이즈산업 상품개발과 해외진출전략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는 지난해 10월 양재동 aT센터에서 '외식프랜차이즈산업 상품개발과 해외진출전략'을 주제로 추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동수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조동민 협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조 협회장은 학회발전 공로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3회차 과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회 교육장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3회차 과정을 진행했다. 양성과정 신청 인원은 총 30명이며, 3일 동안 진행되는 교육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해외전시 및 박람회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슈퍼바이저 자질과 역할 함양, 슈퍼바이저 과정 진행

제27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과정 입학식이 지난해 10월 10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아카데미홀에서 장재남 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제27기 슈퍼바이저전문가과정은 슈퍼바이저로서의 자질과 역할, 건설능력 함양은 물론,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교육 수강생은 총 33명으로 30명이 참석해 전문가 과정을 진행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사회봉사위원회 내곡동 다닐엘복지원에서 훈훈한 나눔의 시간 가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회봉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 17차 사회봉사를 펼쳤다. 매일 실시하는 사회봉사위원회활동은 내곡동에 위치한 다니엘복지원에서 진행됐으며, 회원사들이 준비한 100명의 배식과 지원물품 등을 전달하며 훈훈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공정거래위원회 제14회 세계한상대회 프랜차이즈 IR Show

제14회 세계한상대회 프랜차이즈 IR Show가 지난해 10월 15일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IR Show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5개사가 참여했으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축사로 그 시작을 알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서총 3주년 (주)이바돔 김현호 대표 경제부총리상 수상

2015년도 서비스산업총연합회 3주년 기념행사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일자리 창출 우수단체 및 기업 대표에게 경제부총리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으로 우리 협회 추천으로 (주)이바돔 김현호 대표가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6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끝나고 업계 및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는 임영태 국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연세대 FCEO 제11회 연세대 FCEO 총동문회 체육대회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FCEO(프랜차이즈 경영자) 총동문회가 지난해 11월 10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골드CC에서 '2015 제 11회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FCEO 총동문회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과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NEWS LOUNG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3회 경영멘토링교육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전북지회교육장에서 프랜차이즈경영 마인드 멘토링교육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가맹본부 인력 및 가맹점주의 기본 소양을 배양해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총 40명의 교육생이 수강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유통산업연합회 'K-Sale Day'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3회 유통산업 주간'을 앞두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17일 'K-Sale Day'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동민 협회장 외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1차관을 포함해 유통물류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시작됐다. 이 행사는 정부주도의 내수 진작을 위한 코리아 블랙플라이데이 행사 추진 관련 내용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외식산업협회 국회 토론회, '외식은 산업이다' 주제로 열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가 주관한 '외식은 산업이다'라는 주제로 외식산업과 농수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이 자리에 조동민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현장중심의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해외 벤치마킹 외식 점포 인테리어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회 교육장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해외 벤치마킹 외식 점포 인테리어 3회차 과정이 진행됐다. 양성과정은 3일 동안 진행된 가운데 글로벌 점포 콘셉트 구축, 주요 다국적 프랜차이즈 점포 레이아웃, 색상과 이미지를 통한 인테리어 활용, 브랜드 콘셉트와 연출, 주방비와 배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강의로 구성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소진공워크숍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워크숍 진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하이원 컨벤션호텔 육백홀에서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청 이영석 서기관의 인사말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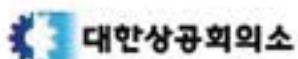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프랜차이즈경영학회 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세미나 연구 성과 업계 관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한 한국외식산업 학회가 지난해 11월 3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렸다. 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세미나는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그동안 연구 성과를 정리한 학술대회로 개최와 함께 조동민 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유통산업연합회 ‘제3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열려

유통업계 최대행사인 ‘제3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유통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회 유통산업주간’은 ‘국민과 함께하는 유통산업! 다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슬로건으로 살아난 소비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으며, 조동민 협회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2016 프랜차이즈 전망 및 창업설명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직원 및 프랜차이즈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016 프랜차이즈 전망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16년 프랜차이즈 경기전망을 통한 적절한 대응방법과 변화하는 정부시책에 대응, 가맹본부 운영전략을 수립해 본부 경쟁력 강화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가맹점 창업 성공전략 및 성공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NEWS LOUNG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새누리당특별위원회 '중소기업 ·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새누리당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국회본관 2층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동민 협회장을 포함해 유관 협회 및 새누리 김무성 최고의원, 이현재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5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2015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협회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산업 실태를 조사, 분석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매경미디어그룹 2016 차세대성장포럼 개최

매일미디어그룹이 지난해 12월 10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16 차세대성장포럼'을 개최하고 제12회 신성장경영대상을 실시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2016 차세대성장포럼에는 조동민 협회장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지식재산보호협회 기업 브랜드 보호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 열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트라 주최 및 주관으로 열린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가 지난해 12월 11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우리 기업 브랜드 보호지원 성과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로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후원했으며 조동민 협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연세대학교 FCEO 총동문회 2015 연세대 FCEO 송년의 밤 행사 및 회장 이 · 취임식

연세대학교 FCEO 총동문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에서 2015 연세대 FCEO 송년의 밤 행사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조동민 협회장이 참석, 자랑스러운 동문인 상을 수상했으며 화합과 교류를 함께 나누는 총동문회 자리를 빛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성분과위 여성분과위 청담동 '더 청담'서 송년회 가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희)가 지난해 12월 30일 청담동 <더 청담>에서 2016년을 맞이하고 2015년 송년회를 가지며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서 여성분과위원회는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위해 역량을 심분 발휘하며, 화합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맥세스실행컨설팅 '제22기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축하 및 수여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맥세스실행컨설팅이 주관하는 '제22기 실무형 프랜차이즈과정'이 15주의 과정을 마치고, 총 39명의 수료생이 모인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조동민 협회장은 축하와 함께 39명의 업계인들에게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연대상남경영원 제28기 프랜차이즈CEO과정 수료식 열려

연대상남경영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에서 제28기 프랜차이즈CEO과정 수료식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28기 졸업식을 맞는 연대상남경영원 프랜차이즈CEO과정 수료식은 총22명의 프랜차이즈업계인들이 참여해 수료식을 가졌으며, 조동민 협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축하합니다]

美 서부지회 개설

우리 협회는 글로벌프랜차이즈의 활성화와 박차를 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에 서부지회(이호욱 지회장, LA위치)를 개설(2015. 10. 29 이사회 승인)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회원사 여러분의 연락처 지원을 위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정보를 현지에서 직접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상담바랍니다.

상담내용 · 시장조사나 투자성 분석(ROI) · 마스터프랜차이즈 파트너 선정 · 입지선정(물건 정보 등)
· 법률자문(계약, 인 · 허가) · 시설공사(인테리어, 장비 · 비품 등)

문의 T. 562,926,2808 / F. 562,926,5154 / Email. imneehow@gmail.com

NEWS LOUNGE

(주)사과나무 <커피베이> 국내외 최초 미국 월마트 4600개점 입점 체결!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커피베이>가 국내외 최초 미국 월마트 4600개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사과나무는 지난 달 23일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페 창업 전문 브랜드인 <커피베이>가 미국 시장 진출을 확정 지으며 국내 토종 카페 브랜드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월마트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주)사과나무 <커피베이>가 국내외 최초로 입점하게 되는 월마트는 미국 내 46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다. <커피베이>는 이번 월마트와 마스터리스 계약 체결을 통해 4600개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켰고, 주요 매장을 시작으로 매장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커피베이>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대표 카페 프랜차이즈로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대형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현재 미국 월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일부 미국 본토 프랜차이즈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 국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유일하게 <커피베이>가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월마트 입점을 통한 <커피베이>의 미국 진출은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들이 미국 진출 시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점포 오픈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

류시장 진출은 첫 진출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커피베이> 백진성 대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시장과 소비자 분석을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온 결과이며, 성공적인 매장 오픈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지에 맞는 메뉴 개발과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한국의 커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토종 한국 카페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베이>는 2016년까지 미국 월마트 주요 점포를 포함한 10개의 직영점을 오픈 할 예정이며, 미국 월마트 4600개 중 매출기준으로 우량 점포를 우선적으로 선별, 가맹점주들을 본격적 입점시킬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2017년에는 100개 가맹점, 그 다음 해인 2018년까지 300개 가맹점을 오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글 강민지 기자



품질 · 가격 경쟁력으로 점포 경쟁력 키울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파사드코리아(주) MOU 체결



간판제작에 프랜차이즈 개념 도입 눈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파사드코리아(주)의 업무제휴협약식이 지난해 12월 18일(금) 오후 5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파사드코리아(주) 업체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의 인사말, 〈참좋은간판〉 오일곤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서명식, 협약서 포토타임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민 회장은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이 있는 〈참좋은간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발전하는데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파사드코리아(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오일곤 대표이사는 “익스테리어 간판은 매장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열악했던 간판 시장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약체결을 통한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한 파사드코리아(주) 〈참좋은간판〉은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알루미늄 시스템 간판인 탑 개발과 간판 제작에 프랜차이즈 개념을 도입했으며, 간판 렌탈 시스템 및

36개월 후불제 시스템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을 선택하는 간판제작 프로그램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고 3년 책임 무상 A/S를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간판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찰제 실시

〈참좋은간판〉은 플렉스 간판이면서 갈바 형태의 다양한 조명연출이 가능한 조립형 파사드 간판이다. 대량생산으로 제작 비용이 절감돼 광고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조립이 쉽고 무게가 가벼워 설치도 용이하며 갈바보다 제작속도가 10배나 빠르다. 또 멀티프레임을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현재 전국 어디서나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주)파사드코리아의 에너지 절감형 간판을 사용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기용량을 줄여주고 간판디자인도 개선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화돼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무상 A/S 기간이 3년이라는 점 등의 여러 이점을 보고 함께 업무제휴를 협약하게 됐다”며 MOU 체결 배경을 밝혔다.

글 강민지 기자 사진 황윤선 기자



NEWS LOUNGE

KFCEO 명품과정 4기 모집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설계하는 지름길

K프랜차이즈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프랜차이즈 징기스칸 500인을 육성하기 위한 KFCEO(K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이 네 번째 포문을 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진출과 최고경영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KFCEO 교육과정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총 16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국내 유수의 프랜차이즈 CEO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3기 과정까지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주)김가네의 김용만 대표, (주)오니규 이명훈 대표, (주)압구정 박의태 대표, (주)이바둑의 김현호 대표 등 국내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CEO들이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경영자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굳혔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16주의 교육과정을 마친 '3기 KFCEO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실질적인 교류까지 이끌어내면서 K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이었던 평가를 받았다.

KFCEO 교육과정은 국내를 대표하는 명강사들이 참여하면서 '명품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김성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공병호 경영연구소장, 전 OBS 사장을

지난 주철환 아주대 교수, 소설 '징비록'을 집필한 정형수 작가, 왕중근 전 아나운서,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김형철 이태일리 대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강연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통해 매주 다채로운 강연이 펼쳐졌다. 그간 글로벌 시대의 프랜차이즈 산업정책, 창조경영과 CEO리더십, 글로벌 신경영기법, CEO의 소양과 자기관리, 일본과 중국 시장의 현황, 경영자의 협상 전략, 변화하는 경영 트렌드와 빅데이터 활용법 등이 그동안의 강의 주제로 등장했다. KFCEO 교육과정은 이러한 강연뿐만 아니라 단체 공연 관람, 등산·골프와 같은 동호회 활동, 해외 프랜차이즈 시장 벤치마킹 워크숍, 글로벌 포럼, 프랜차이즈 본사 방문 행사 등이 함께 구성되어 과정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프랜차이즈 경영자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은 "앞으로 KFCEO 명품 과정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핵심 CEO 500명 이상을 배출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단순히 강의를 듣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참가하는 CEO들이 전문 경영 정보의 교류·협업을 통해 국내 산업을 선진화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FCEO 교육과정은 총 10기까지 500명의 원우를 모집 예정이며, 각 기수마다 50명을 모으고 있다.

교육과정의 등록금은 500만원(1인 기준)이고 참가 신청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팀 이메일(edu@ikfa.or.kr), 홈페이지(www.ikfa.or.kr), 전화(070-7919-4147)를 통해 가능하다.

글 우호운 대리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꼭 갖춰야 할 자격증 ‘프랜차이즈 지도사’에 올인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시스템 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운영시스템에서부터 브랜드 전략기획 및 인큐베이팅, 각종 매뉴얼 구축 및 작성은 물론 그 아이템과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브랜드마케팅전략, 지식재산권의 활용전략, 경쟁력 있는 상권·입지의 선별전략 등 전문역량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지도사 자격증이 절대적인 이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전문 인력양성과 전문적 자격제도인 ‘프랜차이즈 지도사 과정’을 신설, 2015년에 1기와 2기를 배출, 프랜차이즈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지도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된 등록 자격증(2013-0068호)으로,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획 및 전략경영, 시스템 구축, 매뉴얼 작성, 사업타당성 분석과 가맹점 운영진단 및 개선, 슈퍼바이징 브랜드전략구축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능 및 역할 등 실제 프랜차이즈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 전반에 걸쳐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프랜차이즈 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분야별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교육의 중점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탑재하는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경영진단 및 개선, 운영전략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가맹본사의 사업을 지원하고 가맹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 지도사가 직접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지도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와 함께 이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지도사 교육과정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랜 기획에서부터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 과목마다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특화전문 교육 커리

클으로 구성했다. 또 다양한 틀을 이용한 워크숍과 팀 위주의 전문 커리큘럼, 다양한 업종 컨설팅 사례 공유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

교육을 주관하는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의 이상현 소장(컨설팅학 박사)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다양한 인력 풀로 구성된 검증된 자문위원단을 포함해 강사진을 구성,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론과 현장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수료생에게는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과 특전도 제공된다. 즉, ‘프랜차이즈 지도사’ 인증자격과 함께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소속 컨설턴트 활동 자격이 주어지며, 프랜차이즈시스템 컨설팅과 담임교수의 1:1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며,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큐베이팅 컨설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컨설팅 자료 열람 및 연구기회가 제공되며,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전문 자격증인 ‘소상공인지도사’(2013-0069호)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도 부여된다. 아울러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교육 프로그램의 전문강사로 활동할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기업내 취업 시 본사와 연계해 취업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글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현 소장



2016년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산업!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약 4000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해외 진출 업체까지 포함하면 프랜차이즈산업 규모는 약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참고로 통계청 자료는 교육과 제조, 유통 분야를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나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보는 통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4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와 불황을 겪었던 2014년에도 프랜차이즈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졌다.



공정거래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된 상황임에도 치킨·편의점 등 대중적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와 매출액의 성장세가 유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교육 분야를 제외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숫자는 16만 6765개로 전년 대비 10.4%(1만5674개)가 증가했다. 또한 종사자 수도 57만 6555명으로 전년에 비해 12.8%(6만 5382명)가 늘었다.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43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3%(5조원)나 증가했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의 성장은 치킨 전문점과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숫자가 2만 6280개, 종사자 수도 9만 886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5% 정도씩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11조 323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으며,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도 4억 3090만원에 달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가맹점이 2만 4000여 곳으로 늘어났으며, 매출액도 전년보다 13% 가량 증가한 2조 8000여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수가 1만 2000여 곳으로 전년보다 42.2%나 급증했으며, 매출액 역시 전년보다 51.5%나 늘어난 2조 216원에 달했다. 종사자 수 또한 전년 대비 48.9%나 늘어난 5만 4616명을 기록했다.

불황에도 프랜차이즈산업은 성장 지속

이처럼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분야가 성장가도를 달리는 이유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프랜차이즈가 창업의 대세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은 실패율이 낮고, 시간이 갈수록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인허가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반 매장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58.4%에 그쳤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생존율은 73%에 달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1개당 평균 고용인원이 43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가맹점이 8000여개 더 생겨난 만큼 작년 1년간 새로운 일자리도 3만 4400개 생긴 셈이다. 이들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곧 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한류에 힘입어 속속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 진출, 세계 속에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나갔다.



올해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위한 안팎의 지원 기대

2016년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가능성과 해외진출 사례를 목도하며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프랜차이즈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안팎에서 마련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K-프랜차이즈'로 거듭나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 프랜차이즈, 살 길은?'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들도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중 FTA로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게 되면 한류와 함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당 차원에서도 글로벌 프랜차이즈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스타벅스〉와 경쟁하는 국내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그만큼 프랜차이즈사업은 세계 경쟁에 노출돼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산업 기반을 키우기 위해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세계 각지에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시작해 각종 직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 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포화상태에 달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특히 협회와 협회 회원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프랜차이즈기업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재직자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어 참여 기업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4년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

(단위: 개, 명, 백만원, %)

업종별	가맹점수(A)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매출액(B)	증감률	가맹점당 매출액(B/A)
편의점	26,280	5.0	98,863	4.4	11,323,639	10.0	430.9
한식	22,515	11.9	87,040	15.6	5,589,761	19.3	248.3
제빵·제과	8,388	1.7	40,329	6.1	3,393,339	12.1	404.5
피자·햄버거	9,144	7.0	43,174	11.2	2,105,612	4.3	230.3
치킨	24,329	8.0	57,131	8.3	2,776,748	13.1	114.1
주점	11,731	7.3	29,584	7.9	1,545,506	11.0	131.7
기피전문점	12,022	42.2	54,616	48.9	2,021,608	51.5	168.2

프랜차이즈기업과 산업발전을 키워나가는 초석 될 것

협회는 올해에도 회원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컨소시엄 사업을 1월 말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초급 과정인 '실무에 활용하는 글로벌 진출 입문과정(초급)'을 1월 말부터 이틀씩 총 8회 진행할 예정이며, 중급 과정인 '글로벌 전략 자사도입과 활용 실무'와 고급 과정인 '글로벌 핵심인재 역량 고도화 과정'도 2월부터 이틀씩 총 8회 일정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마스터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협상 전문가 과정'과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과정', 'FC 해외진출 선진국(유망) Case Study 패키지 과정'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진행했던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과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프랜차이즈 경영마인드 멘토링교육 등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은 프랜차이즈기업과 산업 발전을 이끌 전문가와 주역들을 키워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알리는 사업과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 제공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제휴 확대,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글 나홍선 부장

제16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맘스터치〉 대통령표창, 〈국수나무〉, 〈커브스〉, 〈영렘브란트코리아〉 국무총리표창 쾌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후원으로 2015년 제16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을 갖고 28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수상을 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 국내외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은 물론,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혁신을 장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심사는 교수, 연구원, 회계사, 세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2명의 심사위원회에 의해 3단계로 진행, 다각도로 업계의 비즈니스모델이 되어 동반성장과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이 선정됐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축제

2015년 제16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장은 눈발이 날리는 곳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 상업체 직원들과 관련자들로 가득 메웠다. 한겨울의 추운 날씨가 무색할 정도의 뜨거운 열 기로 진행된 시상식은 시종일관 환호와 웃음이 가득한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축제 현장 이었다.

한국 프랜차이즈대상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 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관 련 시상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시상으로 국 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공이 큰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제16회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심사위원장인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이 16회를 맞이하며 많 은 주목을 받으며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는 권위 있는 시상으로 발전했다. 그만큼 프랜 차이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위상이 높아졌다. 이 순간 내리고 있는 눈의 풍성함처럼 프랜차이즈산업의 풍성한 발전을 바란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돼 업계의 활력이 되 길 기대한다. <맘스터치>를 비롯한 모든 수상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심사위원장은 또 이번 심사는 1단계에서 신청업체들의 공적서를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수행해 대상기업을 선발했으며, 2단계에서는 서류심사 통과기업의 발표평가를 실시해 우수성과 차별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종 3단계에서는 최종 후보기 업들의 현장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가맹점들의 만족도를 조 사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전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서류심사, 만족도 조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창의산업 정책관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



<맘스터치> 정현식 대표의 수상모습



프랜차이즈기업,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은 시상식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산업 역꾼”이라고 자평하며, “경기침체의 수렁 속에서도 관련 산업 선진화와 사업 확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수상 기업들에게 경의와 함께 박수를 보낸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업체 분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산업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통한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행보가 활발해진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랜드를 수출하는 프랜차이즈가 되길 기대하며 수상 업체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시상식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은 “오늘 내리는 함박눈이 시상식의 의미를 복돋아준다. 국내에 프랜차이즈 산업방식이 도입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나 현재 91조원의 경제규모, 71만명 고용창출을 하는 국가의 대표산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이 모든 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다.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란다.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 행보에 국회도 함께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 상생의 중요성을 유념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과도 동반하는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맘스터치> <커브스> <영렘브란트코리아>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돼

이날 업계 최고의 상인 대통령 표창에는 토종 수제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주)(대표 정현식)가 영예를 안았으며, 국무총리표창은 외식전문브랜드 <국수나무>를 운영하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이사장 송인창)과 서비스업종으로 신나는 운동놀이터 여성전문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커브스>를 운영하는 (주)커브스코리아(대표 김재영), 프리미엄 미술교육 <영렘브란트>를 운영하는 (주)아트크레오(대표 오은정)가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외식업부문에서 ▶(주)푸드존(대표 이영준)의 <피자마루> ▶(주)용마을(대표 이영찬)의 <용우동>이, 동반성장 부분은 ▶(주)바보스(대표 서정원)의 <바보스>가 수상했으며, 우수가맹점 부문은 ▶<원할머니보쌈&죽발> 녹번점의 서정옥 대표가 영예를 안았다. 개인공로 부문은 ▶(주)짐월드 <짐보리>의 박기영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은 해외진출 부문 ▶(주)다온에스앤씨(대표 신정화)의 <바비박스>와 ▶(주)바인에프씨(대표 김현훈)의 <셰프의국수전>이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 외식업 부문은 ▶(주)보하라(대표 이정열)의 <남다른감자탕>이, 연구개발&정보화 부문에서는 ▶(주)치어스(대표 정한)의 <치어스>가 선정됐다. 신생브랜드 부문에서는 ▶(주)바르다김선생(대표 나상균)의 <바르다김선생>이 수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 외식업 부문은 ▶(주)이바둑(대표 김현호)의 <이바둑감자탕> ▶(주)조스푸드(대표 나상균)의 <조스떡볶이> ▶(주)빅투(대표 윤양효)의 <그램그램> ▶(주)맥스원이링크(대표 황규연)의 <셀렉토키피>가 수상했다. 도소매업 부문에서는 ▶(주)엔씨리테일(대표 양진호)의 <못된고양이>가, 연구개발&정보화 부문에서는 (주)에쓰와이프랜차이즈(대표 김성운)의 <엘리팝>과 ▶(주)지호(대표 이옥진)의 <지호한방삼계탕>이 영예를 안았다. 신생브랜드 부문에서는 ▶(주)스트릿쥬러스(대표 소상우)의 <스트릿쥬러스>와 ▶(주)폴잎채(대표 정인기)의 <폴잎채>가 수상했다.

글 박신원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Mini Interview



업계 최고의 영예는 모두가 합심한 결과

해마로푸드서비스(주) **정현식** 대표

Q. 업계 최고의 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소감은?

본사의 전 직원과 가맹점이 합심해서 받게 된 상이다. 그만큼 감회가 새롭고 뜻깊다.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Q. <맘스터치>의 어떤 점이 높게 평가되었을까요?

<맘스터치>의 가맹점들이 만족해서 주는 상이다. 본사의 전 직원과 가맹점주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결과다.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맘스터치>가 되겠다.



다사다난한 2015년은 가고, 희망찬 2016년 새롭게 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년을 되돌아보며 —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지나고 새로운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로 인해 적잖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그야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인고의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올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새로운 한해를 맞아 비상을 꿈꾸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프랜차이즈월드>는 지난 한 해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협회, 지속가능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주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다양한 정부기관 및 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제휴(MOU)를 적극 체결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1월에는 특허청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해외진출 기업의 특허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는 물론 피해사례집과 해외 브랜드 보호 매뉴얼 발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4월에는 기상청과 함께 날씨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외식, 유통 등 기상민감 업종에 대한 날씨경영 세미나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날씨경영을 잘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업 경영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협회는 또 5월에는 고용노동부와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6월에는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개최한 '제34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를 촉진하는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국산 농산물 소비 물량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협회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도 적극 추진했다.

해외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전개

9월에는 드림라인과 정보통신의 핵심사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프랜차이즈 업계에 인터넷 전용회선과 전화 등 IT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또 7월에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전국협의회'와 협약식을 맺고 감정노동자를 생각하며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12월에는 한국배달라이더협회와 친환경 배달 서비스 문화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해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했다. 협회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동안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코트라, 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을 개선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걸맞는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컨소시엄 사업은 재직자 역량 향상 교육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재직자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풍부한 해외진출 경험을 가진 실무담당자 등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강사 풀을 최대한 활용해 6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수강기업 및 수강생들은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라며 큰 만족도를 보였다.

‘프랜차이즈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프랜차이즈를 통해 기업을 일구기를 원하는 사람부터 프랜차이즈가 맹점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산업 연관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공비결에 대해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바로 ‘프랜차이즈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조 회장이 직접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을 브리핑하기도 하고, 프랜차이즈산업종사자, 예비창업자, 협력업체들과 대화 및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치맥토크’로도 진행된다. ‘프랜차이즈 바로 알기’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프랜차이즈의 현 주소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협회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개최해 브랜드에 대해 알리기를 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자신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6월에도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침체된 경기상황을 반영해 인테리어 비용을 경감시킨 기본 부스로 통일해 진행하는 등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대축제 ‘2015 경주컨벤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해 10월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한 ‘2015경주컨벤션’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행사이자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축제로,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의 최고 경영자 및 종사자, 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주컨벤션에서는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세계로 미래로’라는 타이틀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의 초청 특강과 분임토의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인들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한층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제16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25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6회를 맞은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 프랜차이즈 관련 시상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이날 대통령 표창은 토종 수제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주)해마로푸드서비스가 받았다.

연말, 사랑을 전하고자 하나된 ‘나눔의 송년회’ 가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매년 연말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송년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청량리 합파나눔운동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사랑을 전했다.

오후에는 2부 행사로 제3기 KFCCEO명품과정 수료식과 함께 신보혜 강사의 ‘CEO들의 코디전략’ 강좌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도전과 극복’에 대한 강연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송년회 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상식을 개최, (주)에땅의 공재기 대표이사과 (주)다산에프앤지 김양호 대표이사에게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을 시상했다. 또 (주)아들리에에프앤씨의 박정근 대표이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주)에스와이프랜차이즈 김성운 대표이사과 (주)얌샘의 김은광 대표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글 나홍선 부장

2016년 이렇게 달라진다

IC단말기 전환서비스, 서민지원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금융 활성화, 실손의료보험 개선, 자금세탁방지, 신규서민지원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기술금융 활성화, 청년창업지원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등등. 2015년에 이어 2016년은 다양한 제도와 기준들이 마련돼 프랜차이즈 본부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의 변화와 운영이 야기된다. 이에 2016년 병신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보자.

- ◆ 주소 일괄변경서비스(1월 18일 시행) :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이 가능해진다.
- ◆ 클라우드펀딩 상품 출시(1월 25일 시행) :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클라우드펀딩(증권형)이 1월 25일 출시된다.
-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1월 중)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 ◆ 계좌이동서비스(2월) : Payinfo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 만능통장 ISA 통장 출시(분기) :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교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 ◆ 비대면실명확인 시행(분기) :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 ◆ 보험다모아 운영(4월) :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 ◆ 인터넷전문은행 출현(하반기) :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반기 등장한다.
- ◆ IC단말기 전환서비스(1월) :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준다.
- ◆ 서민지원 강화(1월부터 시행) :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된다.
-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월 31일)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0.7%p 인하된다.
- ◆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분기) :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 기술금융 활성화(분기) :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 ◆ 실손의료보험 개선(1월) :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있을 때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 ◆ 자금세탁방지(1월) :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 ◆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 앞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 '값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게 된다.
- ◆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3월) :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 자동차보험 개선(4월) :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2분기)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1월 1일 시행) :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법인차에 한해 적용)되며,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운행기록까지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으로 도입됐다.
- ◆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개시(1월 1일 시행) :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과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된다.
-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1월 1일 시행)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대해 도로·마감재·토양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설정된다.

-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1월 1일 시행) :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 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며,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급여 제도가 도입된다.
- ◆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 시행) : 최저임금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휴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 ◆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내야 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 시행) : 암·희귀난치질환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 134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추진된다.
- ◆ 농식품 벤처·창업에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상반기)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번에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 시제품 판매관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 ◆ 청년창업지원 사업(4월 시행) :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의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가 개최된다.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4월 시행) :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며,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도 실시된다.
-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3월 잠정) :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해진다.
- ◆ 경영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상반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3개소 추가 확대(총 150개소)하고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dream.go.kr)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도 확대(5480명→5680명)된다.
- ◆ 소기업 범위 매출액으로 개편(1월 1일 시행) : 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됐다.(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매출액 10~120억)
- ◆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키로 했다.
-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 ◆ 국산 쌀 중국 수출 확대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단,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뀔 때 따라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 ◆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부모 동거보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1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기업 0.3~0.7%p

전국 238만개 업소 연간 수수료 부담 6700억원 줄 듯...가맹점당 140만원

2016년 1월 말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재보다 0.7%p 인하되며,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인하된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 1.5%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을 0.8% 우대수수료를 적용으로 개선되며,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 우대수수료율에서 1.3%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인하된다.



일반 가맹점은 매출 증가·원가 상승·소액결제 증가 등으로 인상될 수 있어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0.7%p씩 인하된다. 또한 연매출 3~5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현재 약 2.15%에서 1.85%로, 연매출 5~10억원 이하는 약 2.22%에서 약 1.92% 이하로 각각 평균 0.3%p씩 인하한다. 아울러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적정 원가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평균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도록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38만개 업소의 연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67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별 업소 별로는 평균 약 140만원에서 많게는 21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위한 것으로,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신 용	영세·중소가맹점	2억 원 이하	1.5%	1.8%	1.7%p
		2~3억 원	2.0%	1.3%	0.7%p
	일반가맹점 (평균 추정치)	3~5억 원	약 2.15%	약 1.85%	0.3%p
		5~10억 원	약 2.22%	약 1.92%	0.3%p
		10억 원 초과	약 1.96%	약 1.96%	※변동없음
	수수료 상한		2.7%	2.5%	0.2%p
	국세납부대행수수료		1.0%	0.8%	0.2%p
체 크	영세가맹점	2억 원 이하	1.0%	0.5%	0.5%p
	중소가맹점	2~3억 원	1.5%	1.0%	0.5%p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

금융위에 따르면,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은 크게 연매출 증가 및 원가 상승, 소액결제 건수 증가 등이 있다. 또한 이번엔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가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 이상 가맹점으로 확대된 것도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요인이 됐다. 우선 연매출액의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수수료 상승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대형 슈퍼와 할인마트 등으로 이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마케팅 비용이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인상된 곳도 있었다”며 “가맹점별로 특성이나 소요되는 비용도 다 상이하게 달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뿐만 아니라 이번엔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종전에 카드사측에서 부담했던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다소 올라간 곳도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원인 외에도 결제 건당 지급되는 뱅 수수료도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가맹점의 경우에도 뱅 수수료로 인해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향후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별 카드사들로 하여금 1월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정치권·업종별 단체의 한목소리가 수수료 인하 이끌어

이처럼 가맹점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기까지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과 더불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의 노력도 적잖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2011년 새누리당 정태환 의원과 새민련 김영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의원 80여명이 참여해 결성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은 이듬해인 2012년초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과 연합해 대대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을지로위원회도 의원입법 등과 함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해 7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정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일반 가맹점 역시 수수료율이 인하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또한 수수료율 인하에도 실제 가맹점에게는 그렇게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적잖은 가맹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중소 규모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배달서비스 문화개선 · 일자리창출 나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배달라이더협회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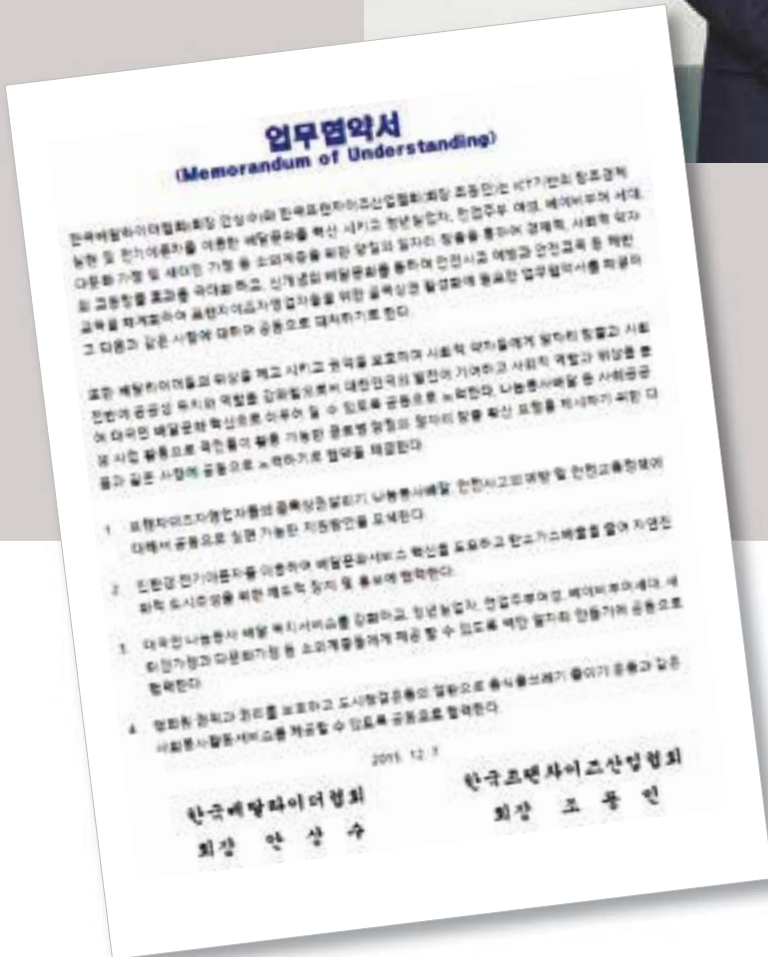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와 한국배달라이더협회(회장 안상수)는 지난해 12월 7일 국회의원 안상수(인천서구·강화군)의원 사무실에서 배달서비스 문화개선 및 배달원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기이륜차를 이용한 그린청정도시 가꾸기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명 일자리 창출 등 배달서비스 문화 개선 및 배달원 안정 공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가맹점 비용절감 및 친환경배달원 안정공급 추진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협회장을 비롯해 박기영 수석부회장, 한상만 상근부회장, 신양숙 홍보대사 겸 이사, 임영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라이더협회에서는 안상수 회장을 비롯해 박은성 부회장, 최재용 사무총장, 김경우 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안상수 회장은 협약식에서 “배달라이더협회가 2~3년 동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용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협약식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공해에 대한 대책이 강조되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배달용 기기가 공해를 유발하는데 반해 무공해·친환경 기기를 사용하는데다 배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오늘 협약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공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어 배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배달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도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회원사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 및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친환경이라는 세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가격경쟁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주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보탬이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지역사회에서의 배달은 안전성이 담보되므로 청년층과 주부, 베이비붐세대의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토바이는 공해와 소음을 유발하는 반면 전기자전거는 안전하고 운동도 되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사회공익활동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협회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그린청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만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전업주부여성, 청년실업자, 베이비부머세대,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배달서비스 문화 혁신을 위해 국내 배달라이더들의 안전·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나눔봉사배달 등 사회공익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사들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해 배달라이더들을 보유한 한국배달라이더협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추진하면 배달서비스 문화 혁신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제1회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2월 23일(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에너지 절약활동에 노력을 기울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직영점 49개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 기업과 가맹·직영점에는 총 97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영예의 대상 <커피베이>, 최우수상 <국수나무>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뜻을 모아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직영점에서의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가맹본부와 가맹·직영점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여름 6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이번 에너지 대상에는 27개 가맹본부, 430개 가맹·직영점이 참여했으며, 가맹본부 부문은 가맹

점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가맹·직영점 부문은 전기절감 실적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해 평가했다.

가맹본부 부문 영예의 대상은 커피전문점 사과나무(주)의 <커피베이>가 차지했다. <커피베이>는 전력소비용량이 낮은 커피기계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은 LED 입체간판이나 매장 내 LED전구를 부착하여 획기적으로 전기용량을 낮추어 설치하고 있다. 가맹점은 본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5개의 가맹점도 가맹·직영점 부문에서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최우수



상을 수상한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 <국수나무>는 점포시공 단계에서 햇빛이 비추는 공간을 구분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주)김가네의 <김가네김밥>도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해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주)대대애프씨의 <꿀닭>은 매년 하절기마다 모든 가맹점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 본사가 점포의 에너지절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전력 다소비 업종 한계 극복, 높이 평가할 만

그 밖에도 우수상은 한식 부문에 <남다른감자탕>, 치킨 부문에 <뽕큐맘 치킨>, 도소매 부문에 <뚝뚝고양이>, 분식 부문에 <쥬스떡볶이>, 주류 부문에 <치어스>, 커피 부문에 <카페드롭탑>, 서비스 부문에 <크린토피아> 등 총 11개 가맹본부가 선정됐다.

점포부분은 전력별(①5kw이하 ②6~19kw ③20kw이상)로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문별 대상 수상 영광은 영어교육 전문 <뮤엠> 가양점(5kw이하), 죽전문 프랜차이즈 <본죽> 불광역 아울렛점(6~19kw), 커피 전문점 <파스쿠찌> 역삼점(20kw이상)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을 수상하는 점포 3곳은 전년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평균 28.5%가 되는 등 전력 절감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스쿠찌> 역삼점은 총 5대의 에어컨을 운영해야하는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곳으로 손님을 안내해 효율적으로 부분 냉방을 실시하였으며, 전력 소비가 높은 제빙기와 온수기, 믹서기 등도 손님 수와 요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채광 활용, 조명스위치에 이름을 붙여 관리하고, 대기전력을 최소화하는 등 점주와 점장, 직원들이 '손님이 나라면, 비품이 내 것이라면, 매장이 나의 집이라면'이라는 표어를 붙여 놓고 한마음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안경박사> 서울대점은 1년 전 매장의 내외부 모든 조명을 LED 전구로 교체해 전년 대비 53.8%의 획기적인 전기 절감률을 보여 전력 다소비 업종의 한계를 극복한 점에서 동일 업종에 우수사례로 확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종을 막론하고 에너지 절감 실적이 높은 매장들은 공통적으로 부분 냉방 실천과 적정온도 준수, 정기적인 에어컨 청소,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냉장과 외에 철제한 대기전력차단, LED 전구 교체 및 조명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낮 시간 자연채광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프랜차이즈, 에너지 절감 교육과 매뉴얼 개발에 주력할 것

그 밖에도 점포부분 최우수상은 <부어치킨> 상계 10단지점, <커피베이> 서울송정점, <크린위드> 정훈단지점(5kw이하), <뽕스밥버거> 인덕대점, <알파> 신촌점, <이웃집소녀떡볶이> 공덕점(6~19kw), <보죽> 이촌직영점, <치킨매니아> 성신여대점, <커피베이> 동교점(20kw이상)이, 우수상에는 <구어스치킨> 신당점을 포함해 총 26개 점포(수상점포 첨부 참조) 등 총 38개 점포가 선정됐다.



서울시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프랜차이즈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확산시키는데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에서는 점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인테리어 단계에서부터 교육·지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가맹점에서는 본사의 에너지절감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앞으로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성공적인 에너지 절감사례가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집약적인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지속되며 장기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전기나 열에너지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절감해야만 한다”며 “프랜차이즈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만큼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에 관한 교육과 매뉴얼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전우진 국장 사진 황윤선 기자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 개요

대회내용

① 점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맹본부

【가맹본부】점포 설계 가이드라인, 에너지 관리 매뉴얼 및 친환경 교육 여부 등을 평가해 점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맹본부 선정,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 가맹본부는 8개의 대중친화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수상기업 선정(8개 업종 : 한식, 치킨, 주류, 커피, 도소매, 서비스, 분식)

② 평가기간 동안(‘15. 6~8월, 3개월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점포(직영점·가맹점)에 대해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점 포】평가기간 동안(‘15. 6~8월, 3개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전력 사용량을 줄인 서울지역의 프랜차이즈 점포(직영점·가맹점) 선정,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조동민 협회장(좌)과 서울시 에너지시민 협력 정희정 과장(우)이 에너지 대상 상장을 하고 있다.



따뜻한 마음 전하는 아름다운 송년회

2015 나눔의 송년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소외계층 복지시설인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2015 나눔의 송년회'를 개최했다. 우리만이 아닌 모두와 함께하는 송년회를 개최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나눔의 행사'는 1000여 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자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며 연말연시 온정을 나눴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밤' 공식 행사를 진행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땅에 밥 굶는 사람이 없을때까지, 파이팅!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2015 나눔의 송년회'는 협회가 매년 펼치는 나눔행사다. 소외계층을 보듬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사간 친목 및 화합을 도모했다.

나눔의 행사는 오전에 진행된 1부 행사로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소외

된 이웃 100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후원품도 전달했다. 20여 개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치킨, 피자, 떡, 만두, 김밥, 샤브샤브, 갈비탕, 죽, 과일, 음료, 쌀 등 각종 음식과 생필품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 CEO들과 임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

비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준비한 음식은 따뜻한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맛있는 향기로 후각을 자극시켰다. CEO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준비에 한창 열을 올렸다. 물건을 나르고 배식될 음식들을 정리하면서도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조동민 협회장을 중심으로 배식을 시작하자 정신없이 분주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그 속에선 기쁨과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배식팀과 배분팀, 설거지팀을 나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협회 회원들 모두 기운이 넘쳤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캐럴과 고맙단 인사를 전해주는 이웃들의 모습에서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최일도 목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땅에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 까지 함께 노력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식사를 마친 이웃들에겐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며 마무리된 행사는 나눔의 송년회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배식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으며, 회사 기업들은 푸드트럭까지 동원해 음식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 제공했다.



Mini Interview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소명 이루는 한해가 되길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며 미양 즐기보다도 낮은 곳을 보살피는 시간을 만들고자 밥퍼 나눔행사를 비롯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도리어 힐링을 받을 수 있었다.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이 부각되길 바란다. 올 한해도 우리 프랜차이즈기업인들의 극복의지와 현명한 투자로 슬기롭게 여러 위기를 극복해냈다. 모든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소명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5 나눔의 행사' 후원목록

- (주)가연푸드 갈비탕 10박스
- (주)교촌에프앤비 치킨 1000인분
- (주)대대FC 닭강정 1000인분
- (주)라이스파이 떡과 만두 각 1000인분
- (주)바르다김선생 김밥 300줄, 위생마스크 50개, 비닐봉투 1500개
- (주)비피알 김밥 300줄
- (주)에스앤크플러스 마이넛츠 1500개
- (주)에프앤디파트너 쌀 20kg (33포대)
- (주)엔씨리테일 머플러 1000개
- (주)웰빙을만드는사람들 피자 50판
- (주)일승식품 피자 50판
- (주)전라도푸드에프앤씨 갈비탕 10박스
- (주)좋은나라 휴지류 50박스
- (주)채선당 샐러드 1100인분
- (주)커브스코리아 쿨 10박스
- (주)토마토디엔씨 고급삼푸 100개
- (주)푸드존 피자 50판
- 본아이에프(주) 죽 100인분
-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오렌지주스 1000개
-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 1000인분





2015년을 보내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뜨거운 밤

이날 송년회 2부 행사에 앞서 제3기 KFCEO 명품과정 수료식이 치러졌다. KFCEO 명품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3기에 걸쳐 후원하고 있는 과정으로, 프랜차이즈 글로벌화와 최고경영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 3기 KFCEO 명품과정 수료식 종료 후 시작된 송년회 2부 행사는 신보혜 강사의 '설득의 기술' 강좌로부터, 흥행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 공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도전과 극복'에 대한 강의가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송년회에서 조동민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주요 인물이다. 베르스와 세월호의 여파로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결과를 거두리라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2016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뜻을 펼쳐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모든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의 전웅길 과장은 "여러분 모두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가오는 새해도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상황에 지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져보자. 보다 많은 기업에서 해외진출에 박력을 가하기 바란다. 하나된 모습으로 뜻깊은 결과를 낼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다가오는 2016년 가족에는 행복, 기업에는 성공신화의 소식이 끊이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공로 기려

이날 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공헌이 큰 프랜차이즈산업인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주)에땅(대표 공재기)과 (주)다산에프엔지(대표 김양호)가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또 (주)아들리에에프엔씨가 외식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주)에쓰와이프랜차이즈(대표 김성운)와 (주)얌샘(대표 김은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은 (주)두독한행복(대표 장기조), 호식이두마리치킨(대표 최호식), (주)디딤(대표 이범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공로패, 감사패를 시상하며 산업 발전에 헌신한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글 박신원 기자, 방현민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황윤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 산업 세계로 미래로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 성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0월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 행사를 개최했다. 350여명의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데 큰 의미를 가졌다.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비전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과 CEO의 마인드 고취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특강과 기업인들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불황과 메르스 등으로 힘들었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글 임나경 편집국장 사진 황윤선 기자



프랜차이즈 각계 분야 350여명이 한 자리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최대 축제인 ‘2015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경주컨벤션’이 지난해 10월 23~2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5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경주컨벤션’은 협회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최대 규모 행사로 프랜차이즈 산업인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업계 발전과 산업진흥을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2015 한국프랜차이즈협

회 경주컨벤션’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CEO와 관련 종사자, 업계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으며,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과 행사로 업계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시간이 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 초 메르스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우리 산업이 국가 경

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노력해서 문화산업이자 지식산업의 꽃인 프랜차이즈산업의 글로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기업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컨벤션 참가 기업 하나 하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의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며 컨벤션 행사 시작을 알렸다.

프랜차이즈의 목표는 공유가치창출

(경주컨벤션 1일차 - 10월 23일)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은 첫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의 '공유가치창출(CSV)의 주체-프랜차이즈 클러스터'를 주제로 강연이 시작됐다. 조 교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먼저 프랜차이즈 업계인들이 공동목표를 갖고 프랜차이즈 기업의 목표와 한국의 공유가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널리 알린다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유가치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업 특성상 이러한 개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가치창출은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뿌리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Plan-Do-See 차원의 프로세스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가격과 품질을 넘어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한국외식정보 박형희 대표의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속성장 전략'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박 대표는 강연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위기와 경영환경의 급변화를 짚어주며, 최근 소비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외식 기업들은 개선, 개발, 혁신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초대 회장이자 강력한 리더십으로 무장한 프랜차이즈산업의 작은 거인 윤홍근 회장이 'FC산업의 징기스칸'이란 주제로 제너시스BBQ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현재의 성공 핵심요소에 대해 설명했



조동성 교수



박형희 대표



윤홍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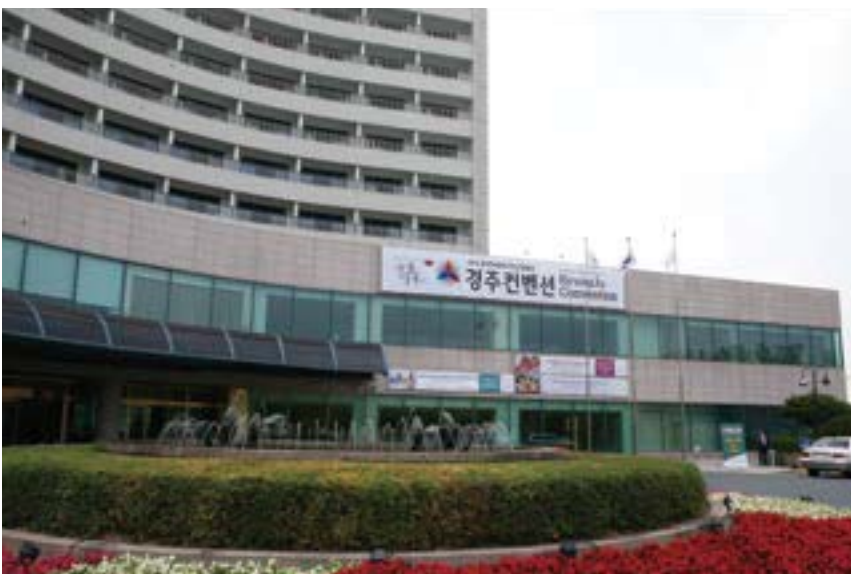
김영미 대표



박영우 대표



조용근 이사장



다. 아울러 그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와의 상생은 물론, 기업의 공유가치 및 사회공헌 활동과 제너시스BBQ가 세계 속, 프랜차이즈 천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체인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3인의 인사 강연이 끝난 뒤 '2015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경주컨벤션'의 하이라이트인 만찬이 이어졌으며, 다채로운 공연으로 협회원사들간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마련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관점과 나눔경영, 시스템 경영을 통한 지속성장 기대 경주컨벤션 2일차(10월 24일)

'2015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경주컨벤션' 첫 날의 뜨거운 밤을 지낸 협회원사들은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인, 아침 8시부터 강연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컨벤션 행사장을 찾았다.

둘째날 첫 시간에는 칼라코드 김영미 대표가 '컬러감성경영'에 대해 강연했다. 김 대표는 '컬러는 도구, 매체, 콘텐츠다'라고 전제한 뒤 컬러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경험함축적"이라고 설명한 뒤 색채를 통해 부활한 도시와 기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컬러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 뒤를 이어 피와이에이치 박용후 대표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우리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살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점을 바꾸면 본질이 바뀌며, 모든 것이 마케팅이 된다고 강조한 박 대표는 커뮤니케이션이란 곧 서로의 의도를 읽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물과 공간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려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 내라고 강조했다. '팩트(Fact) 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임을 강조한 그는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천안함 재단 조용근 이사장은 우리나라 세무사들의 진정한 리더로서 '나눔경영'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잠재적 장애인이다. 나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며 진정한 나눔경영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복지의 분업화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협회가 살아야 프랜차이즈 업계도 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당당하고 신명나게 사업을 해나가기를 주문하며 나눔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강연자로 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인 박미경 대표가 'IT 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그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전략적 IT 경영'에 대해 강조하며, 기업 경영의 IT, 시스템화가 이뤄지면 단계적인 일을 보다 구체화·표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동화, 데이터화 되어 이를 기반으로 분석된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틀에 걸쳐 열린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 일정은 이렇듯 국내 프랜차이즈 CEO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강연 시간이 됐으며, 협회 회원사들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연대감 등을 갖게 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단결과 화합의 자리가 됐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성장 위한 단결과 화합의 자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은 ‘한국프랜차이즈 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에서 업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의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로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전국 각 지회와의 참여는 물론, 화합을 위해 특별히 경주 현대호텔에서 컨벤션을 주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의 개최 배경과 소감은?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세계화와 국내시장의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돌파하자는 의미가 있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인들의 지식함양과 정보 및 노하우 공유의 의미 또한 크다. 신생 프랜차이즈 기업은 1대와의 소통을 통해 경영노하우와 전략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협회 윤홍근 초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큰 의미를 가졌으며, 많은 기업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경주컨벤션 개최는 광주, 부산, 대구, 강화 등 전국 지회의 참석 편의를 위해서 기획됐다. 지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동기부여는 물론, 회원사간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현안과 협회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의 정당한 평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100조원 시장규모와 140만여 종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산업인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각종 법안과 규제 등 각계의 관심과 애정을 끌어내는 데 협회가 그 중심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회원사들의 윤리경영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주컨벤션’과 같은 행사를 통해 우리 산업인들에게 자부심과 단합,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및 업계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프랜차이즈산업은 문화산업이자 미래 지식산업의 꽃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인은 물론 협회회원사들은 우리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욱 박차를 가해 글로벌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시점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이 다소 저평가 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부와 사회의 왜곡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 우리 스스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윤리경영을 위해 올바른 기업마인드와 동반상생,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으로 작용해 업계의 정당한 평가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물론, 프랜차이즈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 탄생!

외환은행 프랜차이즈 창업/운영 대출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를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01

외환은행 프랜차이즈 매일매일 부자대출

외환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님을 대상으로 무보증 무담보의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2억원, 최저 연 4.4% (2014.9.5.기준/ 당행 신용등급 1등급 기준) 저렴한 금리 제공, 일일상환으로 부담없는 대출상환

- **대출대상**
사업기간 3개월 이상, 5개사 카드대출 대금 결제계좌를 외환은행 계좌로 지정한 가맹점
- **대출한도**
업종, 고객의 신용도, 영업실적 등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 **대출금리**
최저 연 4.4% (2014.9.5.기준) (3개월변동/당행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대출금액	매일 납부 원리금	1년간 상환금액	적용금리
5천만원	19,700	5백만원	연 4.4%
1억원	39,400	1천만원	(금융채 연동 3개월 변동금리)
2억원	78,800	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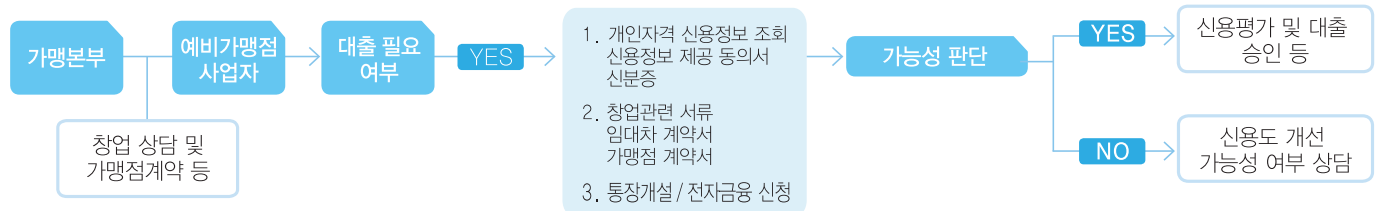
예) 대출금리 4.4% 적용시 대출금액별 매일 납부원리금

- **대출기간**
취급후 1년 (연장포함 10년)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VAN사 확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기 타**
중도상환수수료, 신용평가 수수료 : 면제
- **부대비용**
인지세, 기타비용으로 당행 내규 및 인지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차등 적용

※ 당행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른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사는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하여는 별도 문의

02

외환은행 프랜차이즈 창업대출 절차



※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서비스 시행

0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싶다면?”

• 가맹점사업자일 경우

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회원사 여부 파악 (각 가맹본사에 직접 문의)
2. (회원사라면) 외환은행 지점에 문의 (회원사가 아니라면) 가맹본사가 직접 협회에 문의

• 가맹 본부일 경우

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직접문의(기업지원팀)
2. 협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름
3. 외환은행 상품담당자와 미팅(또는 통화)
4. 별도 협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영지원팀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2F, B1)
T 02-3471-8135~8, 070-7919-4153, 4163
F 02-3471-8139 www.ikfa.or.kr

금융상품 관련 세부상담

KEB 외환은행 | Tel 02-729-0276, 0134, 8743 / 02-3671-1757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공유 '2015 글로벌 프랜차이즈 포럼' 개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액이 연간 100조원에 달하고 있고 고용인원도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요성은 그만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장인 '2015 글로벌프랜차이즈 포럼'을 마련했다.



'K-프랜차이즈의 세계로 미래로'의 나아갈 길 모색

매일경제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5 글로벌 프랜차이즈 포럼'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글로벌 환경을 분석하고 'K-프랜차이즈의 세계로 미래로'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2층)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참석자들이 조찬을 하는 자리를 통해 행사의 시작을 맞았으며 뒤이어 장대한 매경

미디어그룹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장 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가 연간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아직 그만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2016년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더 담대한 용기와 희망이 넘쳐나 발전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개회사를 발표했다. 이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진행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8일 매일경제 신문과 공동 주최로 롯데 서울 크리스탈 볼룸에서 '2015 글로벌 프랜차이즈 포럼'을 개최해 프랜차이즈산업 현황과 문제점,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 진단 및 도약방안 제시

‘위기의 한국 프랜차이즈, 살 길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3명의 강사진이 각기 다른 분야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된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서용구 교수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진단 및 도약 방안’의 강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국제 경쟁력 비교, 그리고 도약방안의 순으로 구성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 강의에 따르면 1970년대 국내 첫 도입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은 양적으로 지속 성장해왔으며 창업 기회 제공 및 고용안정에 기여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많고 그에 비해 생존률은 매우 낮으나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서민경제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실제 20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 독립점은 5년 내 폐업률 84.3%이고 가맹본부는 5년 내 폐업률 20.8%로 나타나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뒷받침했다.

더불어 국가 간 비교결과,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대비 프랜차이즈산업 비중이 아직 낮고, 프랜차이즈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프랜차이즈 특성상, 지속성장성 및 투명성의 한계로 인해 투자자본 유치가 불리해 자본시장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긴 하나, 아직은 갈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자본 시장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업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진출 가맹본부의 글로벌 홍보 지원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산업, 해외진출 성장 가능성 많아

두 번째 법무법인 정률의 전우정 변호사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방향’의 강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영업지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프랜차이즈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AT커니 심태호 파트너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체인의 중국시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 강의는 중국 프랜차이즈 외식 시장의 성장 잠재력, 글로벌 프랜차이즈 체인의 중국시장 전략,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시사점 순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또한 향후에도 충분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국 외식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하고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맥도날드〉 사례를 통해 체계적인 중국시장 전략을 설명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의 전반적인 강평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 동력이자 동반성장의 실질적인 모델임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동반진출의 중요성을 어필하며 K-POP 등의 한류열풍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잘 접목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을 확대, 성장해야한다고 전했다.

글 강민지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배움의 열정으로 하나 된 CEO들이 모였다

-KFCEO 명품과정 3기 수료식 성료-



최고 경영자들의 해외진출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KFCEO 명품과정이 16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1일 강남 팔래스 호텔에서 수료식을 거행했다. 2014년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이 과정은 협회 회원들뿐 아니라 많은 프랜차이즈 CEO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시작해 어느덧 제 3기 수료식을 가졌다. 짧고도 길었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미래를 향한 확신과 계획으로 가득한 CEO들의 들뜬 수료식 현장에 함께 했다.

글 박신원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황윤선 기자

6주차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조경영 리더십 _ 김형철 교수 제3기 KFCEO 명품과정 '원우의 밤'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제3기 KFCEO 명품과정의 첫 시간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철 교수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조경영 리더십'을 주제로 철학하는 CEO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영화의 결정적이고 절박한 장면을 원우들에게 보여주며 훌륭한 리더는 손해인줄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하는 CEO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는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얻어야 하며, '나와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칭찬과 야단의 3법칙, CEO는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업(業)에 대한 질문을 하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끊임 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시간이 끝난 뒤 두 번째 시간은 제3기 KFCEO 명품과정 '원우의 밤' 행사가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3기 송영에 원우회장의 주관으로 원우회 조직발표 및 직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제3기 KFCEO 명품과정 반편성 등이 진행됐으며, 명품 3기의 캐즈프레이즈 공모와 직책별 분담금 확정, 원우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3기 송영에 회장



김형철 교수

7주차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라 _ 박상기 교수 경영자의 언어 _ 왕종근 방송인

대한민국 대표 협상전문가 박상기 교수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라'라는 내용을 주제로 글로벌 매니저의 갖춰야 할 덕목과 상대를 내편으로 만드는 기술 즉, 마피아의 '오폐'협상 전략, 노련한 협상가의 필수 협상전략, 레이건 對 고르바초프, 잭 웰치의 협상비법 등 다수의 저명인사 사례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상능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왕종근 방송인의 '경영자의 언어'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그는 오랜 방송경력을 바탕으로 갖게 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경험치를 언급하며, 어떤 이와 대화를 하든 1분 이상을 넘기면 안된다고 1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상기 교수



왕종근 방송인

8주차

전략의 신(당신이 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전략) _ 송병락 교수
Big Data 시대의 Business Insight _ 김성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자유와창의교육원 원장인 송병락 교수는 '전략의 신 당신이 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전략'을 주제로 ① 적을 잘 선택하라 - 다양한 적, 급변하는 적, ② 전략을 잘 선택하라 - 전략과 융합과 전략의 창조, ③ 실전전략 4단계를 지켜라, 전략 능력을 4단계 높여라, ④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략의 신은 자신의 전략원칙이 있다! 등을 주제로 제3기 KFCEO 원우들에게 전략의 신에 대한 강연을 이어나갔다. 결국, 전략의 신은 자신의 전략원칙이 있음을 강조하며 실력(스펙)에 '전략능력'과 운을 더하고 남과 같은 것으로 남을 이기지 말며, 비교우위, 경쟁우위, 진화우위 모두를 중시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술원 경영대학원 김성희 교수는 'Big Data 시대의 Business Insight'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완전한 피클은 없다. 단지 완전한 피클들이 있을 뿐이다'라며 하나의 제시에 60% 만족하지만, 수평적 분할을 하면 70~80% 만족도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는 고객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업은 시장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객들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우리의 비즈니스는 고객 경험을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통해 더 좋은 정보화의 의사결정과 감추어진 통찰 발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교수

9주차

한국의 대외무역관계와 FTA 정책 _ 박태호 교수
일본의 기업가 정신 _ 김형철 대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호 교수는 '한국의 대외무역관계와 FTA정책'에 대해 강연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실적과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에 대해 짚어봤다. 아울러 한국 FTA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현황은 물론 한-중 FTA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테일리 김형철 대표는 '일본의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 일본의 미래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점쳐진다고 하며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문화와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기초과학분야에 외길 성향이 강하며, 혁신과 파격적이기 보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어 일본식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혁신적이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일본과 미국식의 경영이 혼합된 K-way 경영방식으로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최고의 애국자들이라고 격려했다.



김형철 대표



12주차

초일류 경영을 위한 CEO의 역할과 리더십 _ 공병호 소장 콘셉트가 이끄는 경영 _ 김근배 교수

공병호 경영연구소 공병호 소장은 '초일류 경영을 위한 CEO의 역할과 리더십' 강연을 통해 리더의 조건과 섬기는 리더십,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이어나갔다. 이어 리더십 가운데는 자신을 이끄는 능력, 타인을 이끄는 능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신뢰경영과 차이를 만드는 조직과 펀(Fun) 경영을 통한 소통경영에 대해 설명했다.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김근배 교수는 '콘셉트가 이끄는 경영'을 주제로 콘셉트의 힘에 대해 설명하며 마케팅에서의 콘셉트와 소비자 인식으로서의 콘셉트에 대한 강연을 이어나갔다. 이 내용은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수록된 내용으로 삼성 CEO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최고의 강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공병호 소장



김근배 교수



13주차

한국 소비시장 변화와 미래전망 _ 이정희 교수 2016 대한민국 트렌드 _ 최인수 대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한국 소비시장 변화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에 돌입해 일본의 가격파괴와 저가형상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예로들며, 일본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기업은 저성장시대에 품질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혁신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최인수 대표는 '2016 대한민국 트렌드'를 주제로 2016년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한 뒤, 기업은 소비자의 소비습관 변화와 패턴을 분석해 미래 소비패턴을 예측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교수



최인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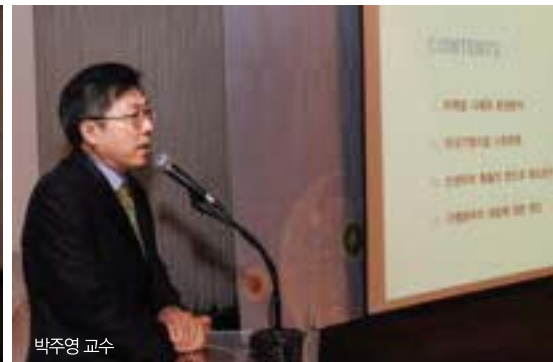
15주차

환경변화에 따른 가맹본부 대응전략 _ 박주영 교수 Good Bye CS! High CV(Customer Value)! _ 김승래 소장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으로 있는 송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환경변화에 따른 가맹본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 국내 프랜차이즈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가운데 양적인 성장에 반해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며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영 아카데미 김승래 소장은 'Good Bye CS! High CV(Customer Value)!'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중이라며 고객만족 경영과 고객가치창조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위한 실천으로 기업은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우리가 모르는 고객니즈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래 소장



박주영 교수

경 제 3기 KFCEO 교육과정 수료식 수료식



프랜차이즈 원로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제3기 KFCEO 명품과정 수료식

원우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제3기 KFCEO 명품과정이 지난해 12월 21일 강남 팔래스호텔에서 16주간의 강연을 뒤로하고 수료식을 치렀다. 제3기 KFCEO 명품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3기에 걸쳐 후원하고 있는 과정으로, 프랜차이즈 글로벌화와 최고경영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은 고품위 강의 콘텐츠와 원우들 간의 돈독한 유대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수료식의 첫 순서는 KFCEO 3기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16주간의 추억이 담긴 영상으로 시작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KFCEO 수업이 진행되는 월요일은 가장 바쁜 날이다. 그럼에도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강의실에 오셔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축하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에 송영예 3기 회장은 "16주가 지나고 한층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뵈실 수 있는 것은 KFCEO 명품과정 강의의 성과다. 집행부와 고문위원, 모든 원우들은 하나로 연합했다"며, "축하를 위해 친히 발걸음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제3기 KFCEO 명품과정을 빛낸 원우들

제3기

이번 행사에선 명품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로 모범이 된 원우에게 상패 전달식이 있었다. 우수상/ (주)웰빙푸드에프씨 전유향 이사장, (주)마야봉 F&C 고금식 대표, (주)송림푸드 한병학 대표, 대우종합주방 박상옥 대표, (주)미당FC 심우열 대표, (주)아로마무역 임미숙 대표, 상상나라 이기복 대표, RE/MAX KOREA 최윤석 부사장, 대상T&D 전상복 대표 등 9인, 공로상/ 바늘이야기 송영예대표, (주)제일좋은솔루션 김남철 대표, 가현 세무법인 최인용 대표, 국민은행 둔촌남지점 이규성 지점장, 노무법인C&B 강미혜 부대표 등 5인, MVP상/ 에릭스도자기 김종래 이사, (주)웰빙푸드에프씨 전유향 이사장 등 2인이 수상했다. 또 원우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수료증 및 수료패를 수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KFCEO 교육과정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프랜차이즈 징기스칸 500인을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된 것으로, 60여명의 원우들이 참여했다. 특히 제3기 KFCEO 명품과정은 (주)김가네 김용만 회장, (주)이수푸드빌 이병익 대표, (주)오니기리와의이규동 이명훈 회장, (주)원앤원의 박천희 대표, (주)코바코의 이용재 대표 등이 참여해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불타는 향학열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KFCEO 3기 송영예 원우회장

Q. 제3기 KFCEO 명품과정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제3기 KFCEO 명품과정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앞장서며 돕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원우들이 많은데, 그만큼 열정이 넘쳤으며 16주간의 시간동안 원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Q. 2016년 새해 각오는?

제3기 KFCEO 명품과정의 원우들은 2016년 새해에도 올해처럼 하나 된 모습으로 잘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든든한 원우들 덕분에 더욱 기대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 행복하기만 하다. 16주간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지식으로만 쌓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가 이를 우리 기업에 적극 활용해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

Q. KFCEO 제3기 수료식 소감은?

한국의 프랜차이즈기업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에 전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CEO들이 현장에서 강한데 비해 미래 설계에는 증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는 교육과 배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 이 소명을 갖고 KFCEO 1기를 시작으로 37기까지 온 것이 감개무량하다. 바쁜 일정 중에 미래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자체가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Q. KFCEO 제3기 원우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KFCEO 명품과정 제3기 원우회는 수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 과정을 통해 육성될 또 다른 CEO들의 선배로서 잘 이끌어 나가주리라 믿는다. 1, 2기 원우회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만큼 더욱 탄탄하고 믿음직한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협회는 본 과정에 참여하는 원우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KFCEO 명품과정 3기 원우명단 (가나다순)



강미혜 부대표
노무법인 C&B



고금식 대표
(주)미아앤F&C <봉이치킨> <봉린버거>



구성희 대표
((주)태웅에프디 <우리림>



김광선 대표
(주)새통상



김규철 이사
(주)건우



김남철 대표
(주)제일좋은솔루션



김득수 상무
SPO(주) <파리 바게트> 외 다수



김상희 대표
(주)메인엔터프라이즈 <에스팩>



김승룡 본부장
(주)음식장터 <수제갈비>



김용만 회장
(주)김/가네 <김가네> <치킨왕잇단> <보죽왕>



김경령 대표
아이유품칠



김원태 대표
(주)엠엔엠디자인



김의연 대표
(주)피아노리브레 <피아노리브레>



김종래 이사
(주)에릭스도자기 <에릭스도자기>



김추봉 사장
아이벤처 <아이코그> <힐링기즈> <아이힐링>



나경숙 대표
세광수산업



노철래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박건욱 대표
(주)에디블유포렌라이즈 <에프의부대찌개> <두동드>



박미경 대표
(주)포시에스OZ



박민철 기자
문화일보



박상욱 대표
대우종합주방



박성운 대표
(주)재성산업



박천중 대표
(주)보현미 <불로만술불바베큐>



박천희 대표
원앤원(주) <원앤원-보쌈죽> <박기부대찌개>



방수남 대표
농부식품



손석우 대표
(주)성김과나눔 <The진국 수육국밥>



송경덕 대표
(주)간지포장



송영예 대표
(주)비늘이끼 <비늘이끼>



신동섭 상무
더 팔레스 호텔 서울



심우열 대표
(주)미당FC <하이브런치>



오덕근 대표
(주)서울에프앤비 <키메레몬트리>



오승서 대표
(주)디디에프앤비 <디디치킨> <오랫이닭가정>



윤도훈 대표
블랙문스터 <블랙문스터> <투스크리이프앤비>



윤종희 대표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요가>



이광호 대표
(주)리플레토스키고피자 <리플레토 스키고피자>



이규성 지점장
국민은행 동춘남지점



이기복 대표
상상나라 <상상나라> (EMERST) <OLD DRAFT>



이명훈 대표
(주)오나규 <오나규(오나규이규중) (리츠레이프클러)>



이성 대표
(주)한음 <발명지기노래연습장>



이용재 대표
(주)호경에프씨 <코바코>



이재희 대표
(주)인창코퍼레이션 <백두대간> (H-OE)



이정숙 대표
대한푸드룸 <푸드> (Q) <CI (공급)>



이정수 사무총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이종현 대표
광진기획



이진창 대표
(주)에드콤윙딩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임경훈 대표
(주)이플러스 <플러스>



임미숙 대표
(주)이로미무역 <양귀리앤들>



전상복 대표
대상T&D



전유향 이사장
(주)엘랑푸드에프씨 <엘랑샘감상사>



정경자 대표
(주)담인 <담인>



정미옥 부장
(주)세이원 <모닝하임>



정연화 대표
헤세디아 <식담양>



정준무 대표
(주)화광코리아



조상호 대표
세무법인 두리



최성진 대표
(주)그래미 <여명 808> <그래미 육향>



최우성 대표
브랜디스디자인



최윤석 부사장
RE/MAX KOREA



최인용 세무사
가연세무법인 <gex>



한병학 대표
(주)송림푸드 <소스토리>



홍기량 이사
(주)츄름 <호미빙>



홍수현 대표
(주)브레덴코 <브레덴코>

■ 제3기 집행부 명단

원 우 회 장	송영예
고 문	이명훈, 김용만, 이용재, 심우열, 박천희, 이재희
수 석 부 회 장	고금식, 박인종, 임미숙, 구성희
부 회 장	손석우, 정준무, 김승룡, 최윤석, 손석우, 나경숙, 정연화, 오덕근, 오응서, 박성운, 홍수연, 이성, 한병학, 윤종혁, 이정수, 방수남, 김주봉, 윤도훈, 홍기량, 송경덕, 김상희, 이기복, 정경자
분 과 위 원 장	전유향, 임경훈, 김광선, 전상복
총 무 국	김남철, 최인용, 이규성, 강미혜
자 문 위 원	노천래, 박민철, 신봉섭, 이진창, 조상호
이 사	박건욱, 김원태, 김원경, 김득수, 김규철, 최우성, 정미옥, 이정수, 최성진, 김종래, 이종현, 이광호, 김의영, 박상욱

(주)후스타일 <요거베리>



yogurberry

세계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요거트 전문브랜드로 성장

(주)후스타일은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겠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전 세계인들이 맛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요거트 디저트 프랜차이즈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국내 역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는 일반 가정 대상으로 요거베리 요거트 메이커를 출시해 150만대 이상 판매하는 기염을 토하며, 치즈 메이커, 요거트 스타터 등으로의 개발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보다 넓은 사업 영역을 펴나가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위한 맛의 표준화에 주력

<요거베리>는 론칭 시점부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목표를 갖고 움직인 브랜드다. 시장 진출 당시 국내는 요거트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난립에 따른 시장 경쟁이 심화된 상태였다. <요거베리>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후르츠 슈가를 첨가한 프로즌 요거트 파우더를 자체 개발 및 출시하기 시작했다. 해외 진출 당시 세계적인 웰빙 열풍과 함께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다수의 나라에 진출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해외 진출 시 생소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요거베리>는 해외 진출 시 누구나 알고 좋아하는 프로즌 요거트를 론칭했다. <요거베리>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공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맛의 표준화였다. 이에 <요거베리> 핵심 원재료인 요거트 파우더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해 나가기 시작했다. 본사 보유의 요거트 파우더는 동결 건조된 제품으로 유통이 용이하고 매장에서 매우 쉽게 메뉴 제조를 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그 맛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에 <요거베리>는 글로벌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표준화 시키면서도 단순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 로컬화에 주력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고 친근한 재료를 토핑이나 음료 메뉴로 개발해 판매, 나라별 <요거베리>만의 브랜드 특색을 만들어 나간 것이 큰 성공의 요인이 됐다.



각 나라 거점에 먼저 진출, 파급효과 커

〈요거베리〉의 강점은 요거트 재료를 직접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R&D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거베리〉는 뛰어난 원재료 개발 능력과 수익 설계 능력, 장비에 대한 바이퍼워 능력을 통해 파트너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또 〈요거베리〉 브랜드를 통해 저지방 & 저칼로리의 프로즌 요거트와 스무디, 주스, 커피와 베이커리 등 다양한 메뉴를 실현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 가능성이 컸다.

더불어 어느 매장에서도 바로 만들어 제공하는 신선한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산지의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 시럽 등을 토핑해 먹는 메뉴 콘셉트로 인해 각국의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요거베리〉는 거점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각 나라별로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거점을 선정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애미 Dolphin Mall 매장, 아틀랜타 Peachtree 매장, 브라질의 상파울루 Lorena 매장, Analia 매장, 두바이의 Festival City Mall 매장을 오픈하였다. 이들 매장은 약 8만~10만 USD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두바이의 1호점인 Festival City Mall 매장의 경우는 UAE에 진출한 최초의 요거트 아이스크림(Frozen Yogurt) 전문점으로 현지 유력 일간지인 Gulf News와 TimeOutDubai, Dubai One TV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UAE의 경우는 진출 후 빠른 시간 내에 현지 시장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물론 아부다비에 매장을 오픈하며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경우도 현지인들의 높은 인기로 인해 구글이나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에 수백 개의 블로그가 포스팅 되어 자연스러운 소비자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이렇듯 나라 별로 관광객은 물론 자국민이 자주 찾는 곳에 〈요거베리〉 매장을 오픈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방문을 유도했다. 그 결과 다른 국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요거베리〉가 나라별 디저트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요거베리〉는 현지 직원 교육의 경우 매장 오픈 전, 〈요거베리〉 매장 개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원재료, 부자재, 매장 운영 매뉴얼, 인테리어 가이드, 홍보물 등을 일괄 제공하고 있다. 또 파트너와 현지 상권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직영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픈 후에는 슈퍼바이저 및 메뉴 담당자를 파견해 수입이 어려운 대체 품목 찾고 개장을 도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요거베리〉는 현지화 능력이 뛰어난 파트너와 사업을 전개해, 본사가 현지의 법률, 비즈니스 관행, 상권 등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후스타일 김진석 대표는 “최근에 진출한 국가의 매장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후 각 국가 별로 가맹 사업을 전개해 매장 수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한국 외식기업들이 잘 나가있지 않은 아랍권 국가와 아프리카의 대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DNA를 품은 라오스 프랜차이즈 산업

국내 패스트푸드 업체 <롯데리아> 라오스 첫 진출 계약 체결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만 총 257개 매장을 보유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국내 패스트푸드 업체 <롯데리아>가 지난해 9월 18일 라오스 현지업체 Sokxay Chaleun Group(SCG)와 현지 진출 계약을 맺고 라오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는 아직까지 라오스 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첫 패스트푸드 업체 진출이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오스

<롯데리아>

라오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성을 보다

<롯데리아>와 KOTRA에 따르면 현지 사업파트너 SCG는 대규모 소비재 유통업체로 주력사업 외에도 건설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폭넓은 네트워크는 물론 많은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롯데리아>-SCG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도 SCG는 초기 투자금액 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년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재 매장 위치나 제품 가격 등 디테일한 사업계획까지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라오스 현지에서는 조만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SCG 관계자 Vilaysack Phoneraserth씨는 “<롯데리아>의 동남아 인근 국가에서 잇따른 성공을 높이 평가한다”며 “<롯데리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진출 시 라오스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인력관리 및 교육까지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라오스 프랜차이즈 업체 현황: 현재 미성숙한 상태나 성장 기대

라오스 내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는 주변국에 비해 훨씬 현저히 적고,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나 협회 등 산업보호장치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아직 미성숙한 분야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서비스업 육성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가장 활발한 프랜차이즈 분야는 카페와 같은 외식서비스 분야이며, 대부분 태국 기업이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호텔도 다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라오스 자체 카페 브랜드 JOMA Cafe의 경우 현지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돼 12개 지점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해외 기업이 프랜차이즈로 진출 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아니나 아직 현지인들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경험이 미숙하고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 프랜차이즈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환경

-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증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최소 투자 자본금 10억 키프(약 125만 달러) 이상 투자조건을 기본적으로 내걸고 있으나 사업내용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
- 유통업종인 도매 및 소매 분야는 WTO가입 후 7년간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지 않음.

지리적 환경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
- 자재 조달을 위해서는 육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 조달 비용이 높은 한계를 지님. 그러나 향후 AEC 구축으로 점점 물류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사회·문화적 환경

-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7.7%를 기록하며 성장 중이긴 하나 2014년 1인당 GDP는 1760달러 수준.
- 현지 직원들은 업무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민감해 이직률이 상당히 높음.
- 야근 및 특근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며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음.
- 교육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트레이닝과 관리가 절실함.

라오스의 경우 도매 및 소매 분야의 유통업종은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으므로, 진출희망 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직영점을 운영한 후 성장에 따라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일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평균 개인소득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진출 시 타깃 고객층을 확실히 설정해 적절한 가격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라오스 진출 시에는 현지 직원관리 또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관세자의 말에 따르면, 현지 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결근하거나 사소한 갈등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직원관리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망분야 및 진출 방안

라오스 일반인들의 평균 식사비용은 1만~2만5000키프(1.2~3달러) 수준으로, 아침이나 점심식사는 학교 및 회사 근처에서 카오니아오(참쌀밥)이나 카오빠약(쌀국수), 바게트 샌드위치 등 단품 음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 식사의 경우 가족 단위로 모여 주로 집에서 해결하거나 외식을 하고 있다.

라오스의 주식인 참쌀에 내용물을 넣은 참쌀 주먹밥은 있지만, 버거 형태로 만든 밥버거는 현지에 전무한 메뉴다. 그 외에 많이 찾는 바게트 샌드위치 경우 빵 자체가 딱딱하고 들어가는 내용물이 매장마다 대부분 비슷해 다양한 맛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고 세트메뉴가 발달한 우리나라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진출은 다채롭고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대표적인 유망 외식 아이템으로는 밥버거, 토스트 등 테이크아웃 업종을 들 수 있다. 이들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다른 요식업종에 비해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식재료 수입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은 매장규모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 및 가격정책만 신중히 고려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 가져다줘 비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방문대여 또는 배달서비스도 직영점 형태로 진출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는 정부 차원(사회경제개발계획, 새천년개발목표)에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수준 향상 등을 목표로 내걸며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들의 열의 또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교육열에 비해 교육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 도서의 경우 대부분 태국어로 돼 있으며, 라오스어 책은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도서 대여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서를 매번 구매하는 것이 라오스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동용 도서의 경우 기타 서적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라오스 가정에서 다량의 책을 구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다. 국내의 아이북랜드와 같이 매주 새로운 책을 회원의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도서 구매비용을 줄여주고 다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어 라오스인들에게 경제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라오스 내 배달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뜨거운 교육열을 고려한다면 도서대여 배달서비스는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라오스 도서시장 자체가 작아 장서 보유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출판업체와 사전에 제휴를 맺고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방 프랜차이즈, 대중적이고 차별화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멀티엔터테인먼트 노래방도 프랜차이즈로 진출하면 좋은 분야다.

라오스인들은 흥이 많아 노래하고 춤 추는 것을 좋아해 일반 가정집에도 마이크와 앰프를 구비해놓고 즐기기도 한다. 따라서 노래방 사업은 이러한 현지인들의 정서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라오스에서 운영되는 현지 노래방은 주류를 시켜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젊은 학생들이나 노래만 부르고 싶은 고객들이

업체명	주요품목	투자국	운영방식	지점현황
요식업				
피자컴퍼니 (The PIZZA Company)	피자, 스파게티	태국	가맹점	1호점(2011년) 2호점(2012년)
스웬센스 (SWENSEN'S)	아이스크림	태국	가맹점	1호점(2012년)
데어리 퀸 (Dairy Queen)	아이스크림	태국	가맹점	1호점(2014년)~ 4호점(2015년)
투루커피 (TRue Coffee)	커피, 빵	태국	가맹점	1호점(2009년) 2호점(2011년)
블랙캐년 (Black Canvon)	커피, 식사	태국	가맹점	1호점(2012년)
후지 (Fuji)	일식	태국	가맹점	1호점(2011년) 2호점(2013년)
네오수끼 (Neo Suki)	샤브샤브	태국	가맹점	1호점(2012년)
촉디 딴섬 (Chokdee Dimsum)	딴섬	태국	가맹점	1호점(2015년)
서비스업				
우티삭 (Wuttisak)	미용, 뷰티케어 서비스	태국	가맹점	1호점(2011년)~ 4호점(2012년)

주스웬센스(SWENSEN'S)와 데어리퀸(Dairy Queen) 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라오스 매장의 경우 각각 태국지사가 투자해 진출함

자료원 : KOTRA 베옌티안 무역관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기존 라오스 노래방과는 다르게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건전한 놀이공간으로서 차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노래방은 음식, 좌식 등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스낵 및 음료 셀프바 등 기존 라오스 노래방에서 제공하지 않는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종합문구 프랜차이즈, 꾸준한 수요 확보로 전망 밝아

유통업의 경우 문구, 팬시류 및 복사, 제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문구점이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구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꼭 필요한 소모품으로, 꾸준한 수요층이 확보돼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를 타지 않는다. 또한 취급하는 제품들의 경우 수명주기가 길어 재고 부담이 적은 사업분야 중 하나다.

현재 라오스에서 운영되는 문구점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며, 문구 전문 소매점이 있기는 하나 문구에만 한정돼 팬시제품을 취급하거나 복사, 제본, 코팅, 팩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 알파문구, 모닝글로리와 같은 종합문구센터처럼 다양한 문구 제품과 팬시 제품을 판매하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 또한 고객층을 소비자뿐(B2C)만 아니라 기업고객(B2B)까지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종합문구 프랜차이즈의 경우 라오스에서는 프랜차이즈 도매 및 소매 유통업에 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에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직접투자(직영)를 통한 1호점 운영 후 점차적인 확대 전략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라오스에서 판매되는 문구 및 팬시 제품은 대부분 인근국 태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물류센터 확보가 중요한 문구사업은 기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현지 업체와 합작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시사점 및 전망 : 태동단계라 좋은 파트너 통해 진출 바람직

라오스 프랜차이즈 산업은 태동 단계지만 향후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진화된 고객서비스 및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진출한다면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낮고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현지 트렌드 파악과 주요 타깃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고 진입한다면 시장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지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업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고, 법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파트너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매일경제 <롯데리아> 공식 홈페이지, SCG 인터뷰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글 나홍선부장



옛날 맛 그대로의 추억을 담다

(주)또봉이F&S <또봉이통닭>

<또봉이 통닭>이 2015년 12월 500호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옛날 맛 그대로 추억을 튀겨 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혜성같이 나타난 <또봉이통닭>은 고객과 가맹점주들을 위한 전국 콜센터를 운영 및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손쉬운 창업 지원을 도모하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펴고 있다.



경기불황에 빛을 발하는 창업아이템

(주)또봉이F&S <또봉이통닭>이 지난 2008년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격 뛰어들어 '옛날 통닭' 틈새시장을 겨냥, 고객과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봉이통닭>은 100% 국내산 생닭으로 닭 품종 선별부터, 염지 및 숙성과정, 튀기는 온도, 초벌 및 재벌 튀김의 실험 반복 등을 통해 속살의 육즙은 살아있으면서 기름이 쏙 빠져 겹질까지 고소한 통닭을 탄생시켰다. 특히 '옛날 맛 그대로 추억을 튀겨드립니다'라는 감성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며, 중장년층에게는 옛날 어릴적 아버지가 노랑봉투에 담아 사오시던 통닭에 대한 추억과 1020세대에게는 또 다른 신선함을 가져다준다. 무엇보다 경기불황 속, 가격의 차별화를 시도해 오며 유통과정의 단순화와 본사마진의 최소화로 소비자가를 8900원으로 낮춰 불황기에 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또봉이통닭>은 회사 홈페이지에 오픈한 점포의 스토리를 꾸준히 올렸고, 400여개 이상의 자료가 쌓이면서 예비창업자들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실속구매와 실속 창업에 큰 효과

일 평균 약 1만 5000수 안팎의 출하를 보이는 가운데, 점주 물품 주문 시 2일에 한 번씩 주 3회 냉장 배송시스템을 가동하며, 주문 후 5분 안에 포장까지 완료하는 전국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봉이통닭>은 단순 배달 매장이 아니라 테이크아웃과 홀 운영을 겸한 매장으로서 500개 점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또봉이통닭>은 (주)하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식용유는 CJ와 공동 개발한 전용유를 사용한다. 하림과의 MOU체결은 연중 균일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맹점에 닭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다. 최근 복고 열풍이 떠오르면서 옛날통닭이 고객들 구미를 한층 당기는 가운데, <또봉이통닭>은 맛과 가격에서 고객 니즈를 만족시켜 발 빠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들에게도 프랜차이즈 진입 장벽을 낮춰 가맹금, 로열티 등의 소멸성 비용을 면제하고 오픈과 관련된 본사의 마진을 대폭 줄이는 등 실비창업으로 오픈을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주)또봉이F&S 최종성 대표는 "국내 치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옛날방식의 튀김방식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해냈고, 무엇보다 고객과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실속구매와 실속창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다 차별화된 콘셉트의 브랜드를 위해 제품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방형민 기자
사진 창업&프랜차이즈 DB



국내에 향초문화를 퍼뜨리다

(주)아로마무역 <양키캔들>

<양키캔들> 한국공식수입원 (주)아로마무역은 가맹사업 진출 3년 만에 전국 15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며,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도모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140억 원을 돌파해 약 300억 원 가량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어 충주기업도시 단지 내 17,358㎡(약 52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

향초시장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

<양키캔들>은 1969년 론칭한 이래 미국 51개주에 16,528㎡(5000평) 규모의 전문 매장 4곳을 포함 300평대 직영매장 550여개와 3만여 개의 취급점 운영, 유럽 등 해외 57개국 59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다. 약 5조 규모의 미국 향초시장에 단일 브랜드 점유율 4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 재료와 미국 FDA 승인한 식용 등급 왁스만을 사용해 자극적이지 않고 100% 면심지를 이용한 세계적인 향초브랜드다. 국내에는 지난 2007년 한국 공식수입원 (주)아로마무역을 통해 소개됐다.

2012년 전 세계 최초로 가맹사업에 진출해 현재 전국 15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양키캔들>은 미국에 본사를 둔 종합 방향제 제조업체로 미국 향초시장 점유율 47% 이상을 점유한 브랜드다. 아울러 전 세계 향초 매출액 1위, R&D 투자 1위, 향 중 보유 1위, 방향제 특허 보유 1위로 명실공히 향초시장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다. <양키캔들>의 조향 기술과 디자인 능력은 후발 동종 업체들보다 50여년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R&D 투자 1위는 그동안 1위 브랜드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이유다.

높은 수익성과 손쉬운 운영, 여성창업으로 인기

국내 향초시장 구매율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는 <양키캔들>은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국내에서 탄탄한 브랜드력을 자랑해왔다. 제품 특성상 여성 및 1인 창업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과 시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 1인 가구 비중의 증가와 함께 솔로 이코노미의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기능성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4년에도 가장 강력한 힐링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중 안정된 매출이 가능한 선진국형 향기 사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손꼽힌다. <양키캔들> 가맹점은 투자대비 안정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업종으로, 39.7㎡(12평) 규모의 경우 7000여만원(점포비 제외) 정도의 소액 투자로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속형 창업 아이템이다. (주)아로마무역 임미숙 대표는 “<양키캔들>은 높은 수익성과 손쉬운 운영, 낮은 투자비용, 1인 창업, 여성 창업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이미 매장을 보유한 가맹점주가 제2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한다거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꾸준히 가맹개설이 이뤄져왔다”며, “향후에는 제조, R&D, 유통, 판매까지 아우르는 종합 방향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박신원 기자
사진 창업&프랜차이즈 DB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문제에 있어서 등록전 매입세액이 세무서와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세법이 개정되어 다소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힘든 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 심의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서울고등 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개청과 함께 9급부터 시작한 그는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대전지방 국세청장까지 역임했다. 또한 2011년까지 4년간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맡았다.



Q. 다니던 직장을 명퇴하고 서울 마포에서 음식점을 개업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던 김일홍(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기존의 인테리어를 변경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내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는데, 관할세무서로부터 일부환급을 거부당했다. 개업 전이라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하다.

(참고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2015년 2월 1일 공사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5년 6월 1일 1억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공사완료 후인 2015년 8월 31일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날에 모두 수취했으며, 사업자등록은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15년 9월 21일 신청해 2015년 9월 22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A.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공제하였다)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시점이나 대금지급시점이 아닌 법에 정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김 씨에 대한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법상 공급 시기는 2015년 2월 1일, 6월 1일, 8월 31일이 되고, 이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8월 31일 세금계산서만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7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9월 21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중도금 지급일을 2015년 6월 1일이 아니고 2015년 7월 1일로 조정했다면 7월 1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중도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결국 김 씨가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세무지식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을 7월 20일 이내에 앞당기거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지급 일자를 늦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날짜로 정정하였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김 씨는 이러한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세금과 관련되는 상담은 항상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성장 시대에 따른 '트렌드 변화와 생존전략'

2015년 창업 프랜차이즈 시장은 장기불황에 메르스사태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

이로 인한 '소자본 창업'과 '트렌드형 업종'의 '과다경쟁'과 '가격파괴 바람'으로 반짝 났다가 소비자에게 쉽게 외면 당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졌으며, '미투 브랜드'의 속출로 창업 프랜차이즈 시장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맥세스실행컨설팅
서민교 대표

서민교대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저자이며, 현재 맥세스실행컨설팅 대표이사 겸 맥세스 프랜차이즈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중간, 동종 업종 간 콜라보레이션 트렌드 주도

저성장시대 및 공급과잉 시대에 대비해서는 3고(高) 현상인 고임대료, 고원재료, 고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임대료 대응에는 비즈모델 재정립을 통한 상권 입지 전략을 변경하고, 고인건비 대응에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을 통한 운영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3고 현상으로 인한 직·가맹점 매출 하락 및 신메뉴(제품) 개발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콜라보레이션 콘셉트의 브랜드 조합이 트렌드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외식 브랜드끼리의 결합, 외식 브랜드와 주점형 브랜드의 결합, 간식형 브랜드와 식당형 브랜드의 결합, 외식과 도소매의 이중간 브랜드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놀부보쌈과 부대찌개 브랜드의 결합, 〈원할머니보쌈〉과 〈박가부대〉의 결합, 〈피쉬앤그릴〉과 〈치르치르〉의 결합, 베이커리와 패스트푸드를 강화한 편의점과 미니카페의 결합, 〈옴티마약국〉과 건강기능식품의 결합, 〈이바돔 감자탕〉과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의 결합 등은 한 지붕 두 세 가족의 좋은 사례다.

No.	2016년 프랜차이즈산업 10대 트렌드 및 생존전략
1	한지붕 두세가족 - 콜라보레이션 트렌드 주도
2	1일 2모작, 3모작 점포 운영 방식 도입
3	저성장 시대 - 시간선택 판매 방식 트렌드 이끌 전망
4	매출부진 업종변경 '이누키 창업' 이끌어갈 것
5	감성, 향수 자극 마케팅 전략 트렌드 주도
6	가격대비 가성비 아이템 창업시장 새로운 트렌드 안착
7	'서비스 업종' 트렌드 주목 받을 것
8	카테고리 킬(Category Kill)형 개발 트렌드 이어나갈 것
9	업 스케일 마케팅(Up-Scale Marketing) 트렌드 각광
10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 - 퍼스날 서비스 자리 잡을 것

'1일 다점포 운영 방식'·'시간선택 판매 방식' 눈길

1일 2모작 3모작 점포 운영 방식이 3고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식, 술집, 주점 창업의 경우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권에 따라 점심 장사도 가능하도록 식사 메뉴를 개발해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 기업체에 위탁해 임대료의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식이 도입돼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존 식당 전문점이 저녁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점형 식당 형태로의 변화도 눈에 띈다. 이미 오래 전에 도소매 업종인 편의점은 1일5모작(아침, 점심, 간식, 저녁, 야식)으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업태이며, 〈마포갈매기〉, 〈와바〉, 〈오빠닭〉 등도 1일 2모작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해진 금액을 내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시간선택 판매 방식이 트렌드를 이끌 전망이다.

‘이누키 창업’ ‘감성, 향수 자극 마케팅 전략’ 이끌 것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누키 창업’이 인기를 끌었다. 이누키 창업이란 망했거나 매출 부진으로 매매가 안 되는 죽은 점포를 싼 가격에 인수하거나, 기존 점주(창업자)가 업종을 변경해 되살리는 운영 형태를 말한다. 국내에도 경기침체로 빈 점포가 늘면서 이런 형태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점주(창업자)는 주방, 홀, 인테리어 이미지, 간판 등을 변경하는 데 투자비를 절약하여 리뉴얼 창업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업종변경 된 브랜드가 입지 상권 및 고객의 니즈에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 한편, 3년 전부터 시작된 복고열풍이 최근 ‘응답하라 1988’이 방영되면서 ‘감성과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열풍 마케팅이 불고 있다. 2016년에는 ‘감성, 향수를 자극한 마케팅’이 절대적인 고객 유입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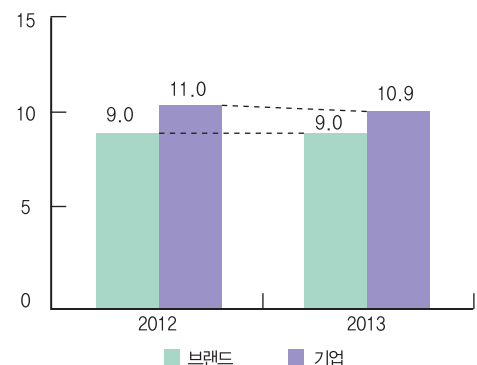
가격대비 가성비 아이템 및 카테고리 킬(Category Kill)형 트렌드

2016년에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가 높은 아이템이 창업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매출 증대와 사업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이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소비층에 맞게 매장을 선택할 때 할인과 1+1 마케팅도 중요한 선택의 원인이 되겠지만, 가격 대비 푸짐함과 기대이상의 메뉴(상품)이 나왔을 때의 만족도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존속 년 수는 평균 10.9년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의 존속 년 수는 기업의 경우보다 짧은 평균 9.0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3년 프랜차이즈 전체 폐점 브랜드 수는 총 186개로 나타났다. 이 중 71.0%인 외식 브랜드의 폐점 수가 13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 브랜드의 폐점수는 33개(18.6%), 도소매업 브랜드의 폐점 수는 21개(10.1%)로 나타났다. 맥세스실행컨설팅이 전수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14년 프랜차이즈 사업현황 보고서’에 의한 통계 자료이다.

카테고리 킬 형(Category Kill)업태 개발은 고객들의 장기간 토털 구매 습관에서 전문화된 제품을 다양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카테고리 킬 형(Category Kill) 업태 개발을 통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 기업 존속 년 수(단위 : 년)

2014년 맥세스실행컨설팅 전수조사

업 스케일 마케팅(Up-Scale Marketing) ‘퍼스널 서비스’ 트렌드 각광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업 스케일 마케팅(Up-Scale Marketing)업태 개발이 트렌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생활의 질 향상’이고, 메뉴(상품)의 좋은 질과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마케팅 트렌드 전략은 ‘업 스케일 마케팅’이 주축이 되어 고급화가 아닌 고도화 전략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올려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전략, 또는 동일한 상품이 같은 품질이라면 그 가격은 절반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

〈바르다 김선생〉 브랜드의 경우 품질 대비 적정 가격선을 두고, 고급 프리미엄 김밥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 고객의 입맛을 잡는데 성공하였으며, 반대로 품질은 그대로 두고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내린 저가형 커피, 저가형 주스 전문점 등은 업 스케일 마케팅의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현 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그 변화 한 가운데서 개개인의 개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미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도록 ‘당신을 위한 서비스’,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 등의 ‘퍼스널 서비스’가 각광 받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2016년 창업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마마파파 스토어’를 지키고 기업에 맞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재구축과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 타인의 명성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 조절돼야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지식재산권이며, 그 핵심은 바로 상표(서비스표)와 영업비밀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간단하게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에 본호에서는 상표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케이엘에프(KLF) 법률사무소
김선진 변호사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문변호사인 김선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제49회 사업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하였으며,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팀에서 근무했고, 공정거래조정원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지냈다. 주요 업무로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해외진출 관련 계약 업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가맹사업에서 상표라 함은 실제로는 서비스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서비스표 역시 상표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하지 않고 상표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단순히 상표라고 호칭하도록 한다.

가맹사업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방해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상 제재할 명분도 없고,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나, 아이템은 물론이고 상표나 간판,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매우 유사하게 따라함으로써 소비자나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존 프랜차이즈와 혼동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유사상표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상표법에 따른 보호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때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 혹은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원 상표와 모방 상표 사이의 발음과 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표권을 가진 가맹사업본부의 가맹점으로 오인해 모방 가맹본부나 가맹점의 점포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가 바로 <다이소>와 <다사소>와의 분쟁이다. 대법원은 <다이소>와 <다사소>가 비록 가운데 한 글자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발음이 유사하고 <다이소> 상표가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다사소> 상표는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소비자에게 다이소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상표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상표를 사용한 <다사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었다. 이처럼 모방 브랜드가 원조 브랜드의 상표를 모방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른 보호는 자신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모방 브랜드가 상표 혹은 브랜드 이름에 몇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을 원조 브랜드를 모방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단순히 브랜드 이름을 넘어서서 내부 인테리어 등의 디자인과 색깔 등까지도 모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두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상표가 아닌 ‘상호(회사이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의 범위가 상표법에 따른 보호의 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실무상으로는 과연 원조 브랜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는지 여부와 상표 등의 유사성, 그리고 원조 브랜드의 명성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때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다는 것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유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예컨대 부산 등)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가진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서울이나 수원에서는 잘 모르지만 부산에서는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떡볶이 브랜드가 있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해당 브랜드의 광고내역 및 광고비의 정도, 신문기사, 인터넷 및 방송노출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광고비 지출이 크고 신문기사 등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경우, 가맹점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처럼 국내에 널리 인식된 브랜드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타인의 명성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부정한 의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적 절차

이상과 같이 모방 브랜드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가. 상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원조 브랜드는 유사 브랜드에 대해 향후의 상표 등 사용금지와 기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6~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모방 브랜드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말미암아 원조 브랜드에게 이미지 훼손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상표사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고소의 진행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유사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유사상표 사용자가 회사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불법사용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표 등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 보았다. 상표에 대한 모방은 원조 브랜드의 이미지를 희석하고 나아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본부에게 큰 손해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방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는 경우에는 모방 브랜드도 일정한 독자적인 인지도를 획득함으로써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시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방 브랜드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강한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3.0 시대가 성장하길

국가 경제가 위기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산업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그 영향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기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향후 저성장과 소비자 구매력의 감소, 구매패턴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학 석사과정 주임
이성훈 교수

세종대학교 FCMBA 이성훈 교수 에프씨엘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1.0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대략 1970년대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나드는 본격적인 경제 도약기로 3저현황과 올림픽의 개최 등과 맞물려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외식 등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맥도날드>, <KFC>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시기였다. 이를 프랜차이즈 1.0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1.0 시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바탕으로 몇 가지 아이템의 상품과 서비스만으로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빠른 성장이 가능한 시기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기업이 대량으로 탄생하며 프랜차이즈 성장시대를 이어나가는 동력이 구축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 욕구의 증가로 가맹점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1.0 시대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할 정도로 새로운 유통채널로 각광을 받을 수 있던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 성장시기를 넘어 1990년대 말 IMF 구제 금융시대가 도래하며 국가경제가 부도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대량해고 사태는 서민들의 지갑을 다시 닫게 만들었고 그 여파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량 실직 사태는 오히려 자영업 증가를 촉진시키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또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2.0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적 팽창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부정적인 단면을 드러내게 된다. 즉, 준비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우후죽순격 출현과 묻지마 창업과도 같은 가맹점 창업으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고급화 세분화되는 변화를 겪게 되면서, 단순하고 뒤떨어진 제품과 서비스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시기가기도 하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이러한 브랜드를 선택한 가맹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행정당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된다. 즉, 2002년 가맹사업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2007년과 2014년 재개정되면서 현재의 강화된 프랜차이즈 규제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며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기를 프랜차이즈 2.0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3.0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3000여 개가 넘어서만큼 성장했다. 이제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내실을 채우는 질적인 도약을 준비해야만 한다. 프랜차이즈 2.0 시대에서는 가맹본부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많은 가맹점의 개발, 제품 제조와 물류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기였다. 즉, 프랜차이즈 기업은 제조공장의 설비 증설, 물류센터의 구축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후방통합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컸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조직 또한 자연스럽게 제조와 구매, 가맹점 개발 등의 조직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프랜차이즈 3.0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 본 바, 프랜차이즈 1.0 시대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도입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성장시대, 프랜차이즈 2.0 시대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정착의 시대였다면, 프랜차이즈 3.0 시대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 개발과 성장 보다는 관리를 통한 효율성과 지속가능 경영의 추구 시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시대,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지향하는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의 추구 시대, 해외진출을 통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반영하고 다변화된 유통구조와 구매 및 결제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옴니채널, 각종 페이, 스마트 폰을 통한 일대일 마케팅의 실현 등은 이제 고객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갖는 시대를 의미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호 활발한 고객 정보의 교류를 바탕으로 고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 시대를 말한다. 많은 수의 가맹점 개발과 다 브랜드 전략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 개 브랜드의 적정 수의 가맹점 개발과 가맹점의 성장이 가맹본부의 성장과 브랜드의 성장에 기여하는 시대를 말한다. 공장과 물류 분야의 인소싱을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고 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디자인, 마케팅, 연구 개발, 관리 시스템을 인소싱하여 지식기반형 조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이 탈바꿈하는 시대를 말한다. 한편, 한국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진출을 가속화 함으로써 세계 100대 브랜드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이 입성하는 시대를 말한다.

2016년은 프랜차이즈 3.0 시대의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이 세계 속에서 꽃 피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브랜드 파워, 소프트 파워, 정보시스템 파워, 디자인 파워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3.0 시대가 성장하길 소망한다.

쌀쌀한 연말 가슴 따뜻해지는 사랑 나눔

11월 다시 찾은 '상록보육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회봉사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록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년 이어지는 봉사 활동으로 어느덧 가까워진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 장난도 친다. 총 84명의 원생이 가족처럼 지내는 이곳에서 사회봉사위원회 김익수 위원장(주)채선당 대표) 외 소속 회원들도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



주택가 속 아이들이 재잘대며 한곳으로 모인다. 상록 보육원은 서울 사당역 근처에 있다 보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육원으로 유명하다. 많은 자원봉사자와 다양한 기업, 단체가 자주 찾아왔지만 어려워진 경제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록보육원을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방문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회봉사 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직원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다. 봉사자들은 다양한 지원품과 음식을 분주하게 나르고, 다른 층에선 간이 미용실을 만들어 운영했다.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마음에 사회봉사위원회 소속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매년 이어지는 봉사활동은 개별적인 지원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언제든 다양한 먹거리를 배달해주거나 수시로 방문해 행복을 나누다 보니 아이들은 협회의 방문을 즐겨워한다.

상록 보육원은 1959년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동들을 기독교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자 설립됐다.

지역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복지센터,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재가노인지원센터, 희망온돌, 시설을 퇴소하는 원생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상록여자자립생활관까지 갖추었다.

협회 사회봉사위원회 김익수 위원장은 상록보육원 부청하 원장에게 금일봉과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부식 및 간식을 전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 후원내역

369플라워 - 대형화분
 꿀담 - 닭강정 100인분
 남다른감자탕 - 라면 3박스
 떡담 - 떡 100인분
 못된고양이 - 양말 200개
 바르다김선생 - 김밥 100인분
 본죽 - 죽 100인분
 블루클럽 - 미용서비스
 셀렉토커피 - 머핀과 우유 각 100개
 좋은나라 - 휴지 50만 원 상당
 채선당 - 후원금 50만 원
 피자마루 - 피자 100인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음료 및 다과

부 원장은 “협회 회원들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고맙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협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어진 분들이 꾸준한 지원을 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에도 도움을 주신 분들 매장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 드리고자 한다. 이제 협회에서 오시는 것을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이번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글 방현민 기자 사진 황윤선 기자

제1회 KFCEO 친선골프대회 개최

징기스칸 전사 500인 육성프로젝트 향한 주인공 한 자리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제1회 KFCEO 친선골프대회를 지난해 11월 9일(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에서 개최했다. KFCEO 명품과정은 지난 2014년 17일부터 2015년 12월 수료식을 가진 3기까지 약 150여명의 글로벌 핵심 프랜차이즈 CEO를 배출해왔으며, KFCEO 원우회를 조직해 업계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2015년 12월 3기까지 이어온 KFCEO 명품과정은 3기를 맞아 갈수록 프랜차이즈 업계 및 관련 기업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제1회 KFCEO 친선골프대회를 갖고, 원우들간의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마련했다. KFCEO 명품과정 친선골프대회는 KFCEO 명품과정 1~3기 원우회와 협회 임원들까지 총 60여명이 참가했으며, 경기 방식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 방식은 매달(최저타수) 2명(남/여), 우승(신페리오) 1명, 준우승(신페리오) 1명, 롱기스트(보낸거리) 2명(남/여), 니어리스트(홀컵거리) 1명으로 구성됐다. 골프대회가 끝난 뒤 만찬에는 골프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원우들이 속속 자리를 메웠고, KFCEO 1기 이재한 골프회장의 개회사와 내빈소개에 이어졌다. 이어 조동민 협회장의 환영사와 KFCEO 1기 정현식 원우회장, 2기 송명의 골프회장, 3기 송영예 원우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동민 협회장은 “KFCEO 명품과정이 3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프랜차이즈업계 CEO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비전을 가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 만큼 제1회 KFCEO 친선골프대회가 큰 의미가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짐은 내려놓고 오랜

만에 만난 원우들과 선후배 기수들끼리 격의 없는 만남과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환영사를 대신했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각종 기업에서 제공한 푸짐한 협찬을 제공했으며 제1회 KFCEO 친선골프대회를 기념해 ‘KFCEO 장학기금 전달식’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KFCEO 명품과정은 지난 2014년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고 경영자들의 해외진출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한 과정으로 글로벌 핵심 프랜차이즈 CEO를 배출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특히 국내 산업과 문화를 이끄는 최정상급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해 처음부터 눈길을 끌었다.

KFCEO 명품과정 친선골프대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회장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 ●조직위원장(각 기수 원우회장) : 정현식(1기), 김성호(2기), 송영예(3기) ●운영위원장(각 기수 골프회장) : 이재한(1기), 송명의(2기), 김광선(3기) ●경기위원장(각 기수 사무국장) : 이원복(1기), 이종훈(2기), 김남철(3기) ●경기부위원장(각 기수 골프총무) : 함지훈(1기), 장완수(2기), 박상욱(3기) ●경기진행위원 : 협회사무국

글 방현민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시안(西安) 과거의 중국과 현대의 중국을 동시에



중국에는 총 34개의 성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도시가 있다. 그중 시안은 인천공항에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도시로, 중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산시성(陝西省)의 성도다. 또 한·위·서진·수·당나라 때 국도였던 장안성이 위치했으며, 3000년의 도시 역사 중 반 이상이 제국의 수도로 기능한 곳이기도 하다. 덕분에 명대 성벽을 비롯해 유적이 많아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와보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만큼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는 시안에서 시내의 명소를 통해 중국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만나보자.

진시황의 병마용과 양귀비의 화청지

시안을 대표하는 유적지인 병마용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1974년 우물을 파던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해 지금까지 총 3개의 갱이 발견되었는데, 하나 하나가 놀랍도록 규모가 크고 세밀한 병마용들이 있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병마용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6000개의 병마용들이 각각 얼굴 생김이 다르고 계급에 따라 다른 복식을 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싼 입장료(성인 기준 3~11월 150위안, 12~2월 120위안)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시안을 방문했다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다.





■ 중국 시안(西安) 정보

위치 중국 산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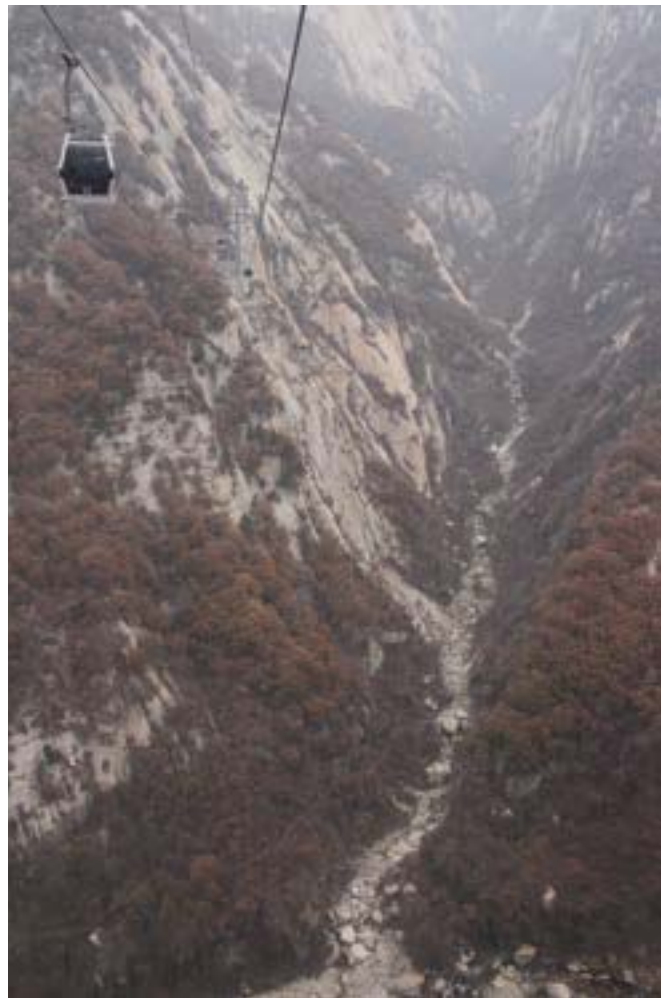
면적 9,983km²

홈페이지 www.xa.gov.cn

인구 8,467,837명 (2010년 기준)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가 서로 사랑을 속삭였다는 화청지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고궁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규모가 훨씬 크고 당시 온천 욕탕이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역시나 부담스러운 입장료(성인 기준 3~11월 150위안, 12~2월 120위안)지만 화청지를 둘러보는 것 역시 시안 여행의 필수. 특히 장생전(長生殿)에서 볼 수 있는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중국어를 알지 못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데다가 3D 효과가 뛰어나서 상당히 재미있다. 출입구 쪽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족욕 온천과 고가의 프라이빗 온천도 즐길 수 있다.



14km의 명대 성벽과 인상적인 화산

병마용과 함께 시안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벽이다.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 성벽인 옛 시안의 모습과 규모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14세기에 만들어진 명나라 성벽이다. 12m의 높이와 12~18m의 두께이며 총 길이는 14km에 달한다고 하니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총 4개의 큰 문이 있으며, 명나라 당시에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신분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다고 한다. 시안을 여행하다 보면 특히 남문을 여러 번 지나치게 되는데, 남문을 통해서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자전거를 대여해 성벽 위를 달리거나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산책하면서 시안의 시내를 바라보는 것도 즐겁다.

중국의 오악(五岳) 중 하나인 화산은 시안에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안에서 버스나 기차를 통해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 있다. 화산은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케이블카로 등반한 후 일부 등산로를 이용해 화산을 관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개된 등산로와 함께 화산을 즐기기 위해서는 1일 이상의 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화산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케이블카가 있는 동봉과 서봉 중 서봉이 압도적으로 아름다운데, 끝없이 이어지는 케이블카의 선을 보면 아찔할 정도. 게다가 각 구간마다 바뀌는 화산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다. 케이블카에 내려 서봉 정상에 올라가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어 중국인들이 왜 화산을 명산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종루에서 느끼는 현대적 도시의 즐거움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시안에는 종루(鐘樓)가 있다.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던 종루는 지금은 시안의 명소가 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다. 특히 야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불을 밝힌 종루와 고루를 보는 것은 시안 여행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코스이기도 하다. 종루 근처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이 있으며, 종루에서 450m 떨어진 고루 옆에는 이슬람 거리(回坊)가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에는 온통 양꼬치를 팔고 있어 이색적이다. 양꼬치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기념품, 생활용품 등을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안을 방문했다면 놓쳐서는 안 될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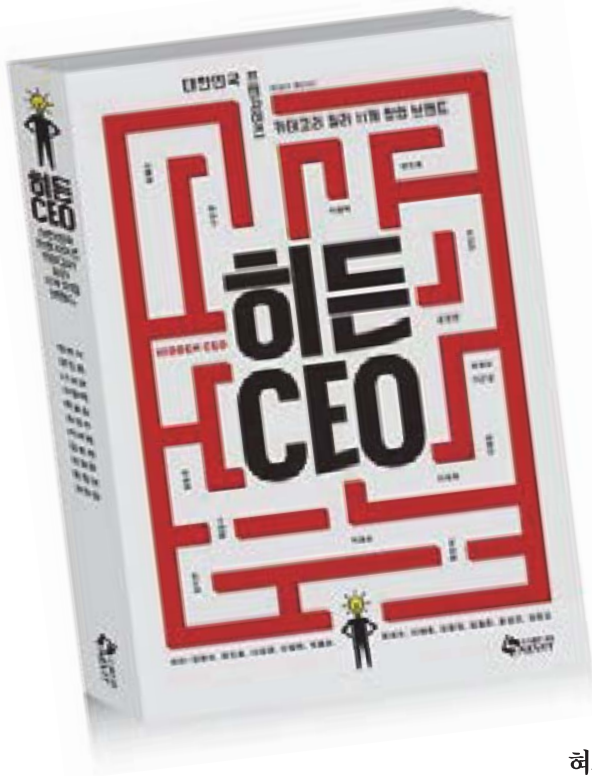
시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도 있다. 바로 방방면. 실제 있는 한자 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한자 중 가장 많은 획수라고 알려져

있다. 넓은 면발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서민들의 음식으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다. 이슬람 거리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방방면을 파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다. 맛도 좋고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하기에도 좋다.

이밖에도 시안에는 청진대사, 비림박물관, 소안탑과 대안탑, 산시역사 박물관, 진시황릉 등 볼거리들이 적지 않다. 또 당락무와 같은 고전무용도 볼 수 있어 시안을 간 것만으로도 중국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시내에서는 도시적인 즐거움을, 약간만 밖으로 나가면 고도(古都)의 감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안은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늘 활기차다.

글·사진 조주연 기자

CEO's LIBRARY



2013년 3월 청주대 뒷골목에 1호점을 오픈한 복고풍 브랜드 〈청담동 말자싸롱〉은 2014년 6월 100호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금에 이른다. 최성수 대표는 가맹본사와의 소통의 흐름만 봐도 그 회사의 역량과 미래지향성을 알 수 있다며 직원간의 소통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CEO다. 아울러 본사의 교육프로그램과 가맹점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도 그 브랜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 왕징점을 오픈하면서 〈청담동 말자싸롱〉은 국내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간한 책 「히든 CEO」를 추천했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사업 시작과 성공, 그리고 실패의 내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 내비게이션을 건네고 있다.

다독 CEO, (주)금탑프랜차이즈 최성수 대표의 추천도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카테고리 킬러 11개 창업브랜드

「히든 CEO」 대표저자 정현식 도서출판 새빛 / 356P/ 1만 6000원

프랜차이즈 업계 11인의 성장노하우를 담은 「히든 CEO」는 '어떻게 하면 창업자들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카테고리 킬러 11개 창업브랜드' 부제를 단 「히든 CEO」는 책자에 프랜차이즈 업계 CEO 11명의 사업 도전과 실패, 노력과 성공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궤적을 가감 없이 담아 놓았다. 「히든 CEO」는 출발이 다른 11명의 CEO들이 예비창업자, 현재 창업중인 사장님들에게 '살아있는 정보'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사례와 전략을 던지고 있다. 또 사업을 시작한 계기, 브랜드 탄생 과정부터 여러 위기의 극복과정과 성장 스토리를 다각적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정보와 울림을 준다.

특히 이 책을 기획한 대표저자 해마로푸드(주) 〈맘스터치〉 정현식 대표는 "개인 창업은 실패의 데미지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이 망하면 가맹점인 프랜차이즈들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잘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창업하는, 이른바 부실창업 사례가 많아 프랜차이즈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어려모로 안타까웠던 것이 이 책을 낸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히든 CEO」는 메르스 여파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내수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창업시장,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역동적인 도전과 추진 과정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최성수 대표

News Lounge

협회 News & 업계 동향

회원사 행사 및 소식

교육 일정

지도사 · 슈퍼바이저 합격자 명단

협회 일정 및 협회장 동정

신규 회원 가입 현황

회원가입

BRAND NEWS



NC리테일그룹

〈뭇된고양이〉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서 우수상 수상

지난해 12월 23일, NC리테일그룹의 〈뭇된고양이〉가 서울특별시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시상식에서 가맹본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NC리테일그룹 관계자는 “〈뭇된고양이〉는 인테리어 단계부터 점포 운영까지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맥스원이링크

소자본창업 〈셀렉토커피〉 전주 사업설명회 개최

‘5가지 아메리카노’라는 차별화된 콘셉트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셀렉토커피〉가 호남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최근 〈셀렉토커피〉 전주 혁신도시점에서 〈셀렉토커피〉만의 커피 창업 노하우를 전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셀렉토커피〉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과 합리적인 소자본 창업비용으로 본사와 가맹점 모두 ‘윈윈’ 하는 성공 창업을 이끌고 있으며 2014년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에 선정된 바 있는 유망 커피 프랜차이즈이다.



본아이에프(주)

〈본죽〉 수험생 위한 ‘죽마고우 이벤트’ 진행

〈본죽〉은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불낙죽을 제공하는 ‘죽마고우 이벤트’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본죽〉의 ‘죽마고우 이벤트’는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진행되는 〈본죽〉의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다. 참여 방법은 〈본죽〉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댓글 중 추첨을 통해 5개 학급을 선정,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불낙죽을 1개 학급 당 40인분씩 제공했다.



에스알에스코리아(주)

〈KFC〉 ‘스·와·치 초이스’ 4500원 할인 이벤트 진행

〈KFC〉는 최근 푸짐한 구성의 ‘스모키 와일드 치킨버거 초이스’를 4500원에 판매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에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스·와·치 초이스’를 단품 대비 약 38%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었다. ‘스·와·치 초이스’는 100% 순 국내산 닭가슴살 빅패티와 치즈, 양상추 등 신선한 재료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담긴 버거인 ‘스·와·치 버거’와 100% 신선한 국내산 냉장닭을 〈KFC〉만의 비법으로 조리해 속은 촉촉하고 겉은 매콤바삭한 맛이 특징인 ‘핫크리스피 치킨’과 시원한 콜라로 푸짐하게 구성돼 있다.



(주)카페베네

〈카페베네〉 베네데이 뮤지컬 ‘인더하이즈’ 50% 할인

〈카페베네〉는 지난해 11월 베네데이를 맞아 뮤지컬 ‘인더하이즈’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카페베네〉 멤버십 회원을 위한 ‘베네데이’는 매월 6일 다양한 문화 공연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베네데이 공연은 제 62회 토니어워드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4개 부문을 휩쓸며 호평을 받은 뮤지컬 ‘인더하이즈’가 선정됐다. 이날 베네데이 공연을 예약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프리미엄 디저트커피, 마노 디 베네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베네럭키박스를 제공했다.



(주)아들리에에프앤씨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AEO인증 취득

(주)아들리에에프앤씨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관세청의 수출사업 부문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아들리에에프앤씨는 2014년 1월, 필리핀 해외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에 각종 소스 및 장비 등을 수출 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AEO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TF(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으며, 관세청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A등급을 받았다.



(주)하남에프앤비
〈하남돼지집〉 동종업계 최초 TV광고 실시

〈하남돼지집〉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외식 메뉴 삼겹살을 차별화된 소재로 풀어낸 2015년 하반기 새 TV광고 '비교하라 대적할 상대가 없다'를 론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영상 광고는 TV는 물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IPTV를 통해 공개됐으며 TV광고 론칭을 기념해 페이스북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친구와 함께 〈하남돼지집〉 TV광고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외식상품권 30만원 1명, 겨울 필수품인 USB 온열담요 99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제공했다.



(주)놀부
〈놀부〉 중국 외식 전문기업 황지향과 MOU 체결

종합외식전문기업 (주)놀부가 본격적인 중국 사업 확대를 선포했다. 〈놀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놀부 본사 사옥에서 김준영 대표이사와 북경 황지향 찬음관리유 한회사(이하 황지향) 황경희장, 주주사 모건스탠리PE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사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미 중국 요식업 브랜드인 〈맥브랜즈〉와 손잡고 상해 지역 등에서 활발한 사업확장을 진행중인 (주)놀부는 이번 추가적인 MOU 체결로 황지향의 안정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주)오니규
〈오니기리와이규동〉 '밥퍼' 봉사로 나눔 실천

〈오니기리와이규동〉이 지난해 12월 21일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열린 '2015 나눔의 행사'에 참가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시식행사를 하는 봉사단체로, 프랜차이즈산업 협회와 함께 매년 연말 밥퍼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니기리와이규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며 "앞으로도 밥퍼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청오디피케이
〈도미노피자〉 '2015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3년 연속 1위

피자배달 전문 기업 〈도미노피자〉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최한 '2015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에서 피자전문점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지난해 12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도미노피자〉는 프리미엄 피자시장을 이끈 새로운 식재료 발굴은 물론 모바일 기술과 외식 브랜드를 접목시킨 신개념 주문 서비스 개발로 고객 만족을 높인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피자전문점 부문 1위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BRAND NEWS



(주)바보스

〈바보스〉 2015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미들비어 〈바보스〉는 지난해 12월 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 16회 2015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바보스〉는 2015년 미들비어의 대표주자로 닭강정, 누들, 크림비어의 3가지 브랜드가 결합한 콜라보레이션 콘셉트로 큰 인기를 받았다. 〈바보스〉 관계자는 “소자본 창업, 미들비어 등의 콘셉트로 고객들에게 베푼 결과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다”며 “2015년은 100호점을 돌파한 의미가 깊은 해이고, 내년에는 300호점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채선당

〈채선당〉 9년 연속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수상

〈채선당〉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년 ‘제 16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반성장부문에서 수상했다. 〈채선당〉은 “샤브샤브 대중화와 13년의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맹점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물론 수익 증대를 위한 다방면에 걸친 본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채선당〉은 가맹점을 가족점이라 부르고 내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마음으로 계약 및 거래 공정성을 준수하며 가족점과 연중 활발한 소통을 펼쳐 나가고 있다.

(주)김가네

〈김가네〉 서울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최우수상’ 수상



외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김가네가 지난해 12월 23일(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시상식에서 가맹본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은 서울시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가맹점에서의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본 시상식에는 27개 가맹본부, 430개 가맹·직영점이 참여하여 총 49곳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선정됐다.



비알코리아(주)

〈배스킨라빈스〉 ‘우유 초코볼’, ‘플라워 파티’ 출시

〈배스킨라빈스〉가 지난해 10월 이달의 맛에 ‘우유 초코볼’과 아이스크림 꽃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10월 이달의 케이크(COM; Cake of the Month) ‘플라워 파티’를 출시했다. 10월 이달의 케이크로는 아이스크림 조각을 꽃송이로 형상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플라워 파티’를 선보였다. ‘플라워 파티’는 베리베리스트로베리, 엄마는외계인, 민트향초콜릿칩, 체리쥬빌레, 블루베리치즈케이크, 아몬드봉봉, 뉴욕치즈케이크로 구성돼 배스킨라빈스의 인기 플레이버 7가지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었다.



(주)탐앤탐스

〈탐앤탐스〉 ‘워터캔들’ 출시

〈탐앤탐스〉는 액상향기양초 ‘워터캔들’을 선보이며 ‘〈탐앤탐스〉 워터캔들 세트’와 ‘〈탐앤탐스〉 워터캔들 리필 세트’ 총 2종을 지난해 12월에 출시했다. ‘워터캔들 세트’에는 ‘블랙체리’ 워터캔들과 캔들 용기, 심지, 핀셋 등이 구성돼 있다. 캔들 용기로는 〈탐앤탐스〉의 인기 친환경 MD 제품인 ‘에코 핸들드링킹자(이하 에코컵)’가 사용돼, 에코컵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탐앤탐스〉 워터캔들은 블랙체리, 레몬라벤더, 핑크레이디블리퍼, 가드니아 등 총 네 가지 향으로 출시했으며,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해마로푸드서비스(주)
〈맘스터치〉 대만진출 합작 조인식

〈맘스터치〉는 대만에 합작법인을 세워 다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 조인식을 가졌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맘스터치〉 합작법인은 대만 신주에, 대만 1호점은 타이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맘스터치〉 정현식 대표는 “대만 진출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와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에서 세계적인 빅 브랜드와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주)
〈교촌치킨〉 대학생 응원 ‘치킨 꿈나무 토크쇼’ 진행

〈교촌치킨〉으로 치킨시장을 선도하는 교촌에프앤비(주)가 지난해 12월 23일(수)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교촌치킨〉 탄방점에서 ‘치킨 꿈나무 토크쇼(이하 치꿈 토크쇼)’를 진행했다. ‘치꿈 토크쇼’는 배재대학교 김소월대학 여가서비스경영학과 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펼쳐졌다. 토크쇼 멘토로는 배재대학교 김소월대학 서진욱 학장, 배재대학교 김소월대학 여가서비스경영학과 박근수 학과장 및 교촌에프앤비(주) 이근갑 국내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했다.



(주)아로마무역
‘양키캔들 정품 인증 시스템’ 도입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양키캔들〉에 국내 정품 인증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 5일 〈양키캔들〉 한국공식수입원 (주)아로마무역은 대표 상품인 ‘자캔들’ 전 상품에 ‘정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키캔들 정품 인증시스템’은 미국 Yankee Candle Company, Inc와 양키캔들 한국 공식수입원인 (주)아로마무역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에 수입된 정품임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병행상품과 유사 모조품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지엔푸드
〈굽네치킨〉 ‘사랑의 치킨 나눔식’ 열어

〈굽네치킨〉이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홀트일산복지타운에 〈굽네치킨〉을 전달하는 ‘사랑의 치킨 나눔식’을 진행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치킨을 후원하기 위해 진행된 ‘사랑의 치킨 나눔식’에서는 〈굽네치킨〉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직접 따뜻한 치킨을 나누는데 동참했다. 또 〈굽네치킨〉은 1월부터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매일 치킨 100마리를 후원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신라외식개발
〈티바두마리치킨〉 〈없었던일로〉와 콜라보 이벤트

〈티바두마리치킨〉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없었던일로〉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티바두마리치킨〉 1set 이상 주문 시 〈없었던일로〉 2만원 할인 쿠폰이 함께 제공되는 것. 〈티바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이번 〈없었던일로〉와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는 〈티바두마리치킨〉을 좋아해주는 고객들 중 많은 분들이 칼로리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 고객이 원하던 이벤트를 성사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BRAND NEWS



(주)가업FC

〈구이가〉 신규 오픈 매장에서 생삼겹살 2000인분 증정

정통삼겹살 전문점 〈구이가〉가 신규 오픈 매장에 한해 숙성 생삼겹살 2000인분을 제공했다. 〈구이가〉는 지난해 12월 새롭게 문을 연 인천 원당점과 고양 원흥점에서 매장 오픈을 기념해 각각 선착순 2000명에게 숙성 생삼겹살 1인분 쿠폰을 제공했다. 숙성 생삼겹살 1인분 무료 쿠폰은 〈구이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92gaa)에서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쿠폰은 오는 1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주)치어스

〈치어스〉 '4단계 밀착관리 시스템'으로 성공창업 지원

생맥주 전문점 〈치어스〉에서는 전국 어느 매장을 가든 호텔급 요리메뉴와 신선한 생맥주를 맛볼 수 있다. 250개가 넘는 매장에서 거의 똑같은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치어스〉에서 제공하는 '4단계 밀착관리 시스템' 덕분이다. '4단계 밀착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조리, 식자재, 매장 운영 등 각 부분별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매장관리를 세분화시켰다는 점이다. '4단계 밀착관리 시스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장을 처음 오픈할 때부터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진행된다.

(주)크린토피아

(주)크린토피아 안성 공장, 시민장학회에 1000만원 기탁



(주)크린토피아의 린넨사업부 안성공장이 지난해 12월 2일, 공도읍 기업단지 내 (주)크린토피아 안성공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시민장학회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준공식 자리에서 (주)크린토피아(대표 이범택)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의 후원금을 (재)안성시민장학회에 전달했다. 후원금을 전달한 이범택 대표는 "안성의 발전과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치푸드(주)

〈치르치르〉 홍콩, 마카오 진출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리치푸드(주) 〈치르치르〉가 아시아의 허브, 보석이라 일컫는 홍콩과 마카오에 진출한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까지 MFC 계약으로 성공 진출한 리치푸드(주)의 〈치르치르〉가 지난해 12월 21일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Logistics를 주력 사업으로 전세계 17개국 42개 도시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건실한 글로벌 기업 Korchina Group의 외식 담당 계열사인 KORCHINA F&B Holding Limited와 MFC계약을 체결했다.



(주)설빙

〈설빙〉 사랑나눔 봉사활동 진행

코리안 디저트카페 (주)설빙이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하남시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며 효를 실천하는 한편 삭막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이웃 간의 정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주)설빙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했으며 이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교촌에프앤비(주)
〈교촌치킨〉 캄보디아서 함께 봉사

교촌에프앤비(주)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해외봉사에 참여한 교촌 나눔봉사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으며 교촌은 이번 해외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금 1300만원을 후원했다. 봉사에 참여한 교촌 나눔봉사단 관계자는 “교촌의 기업이념인 나눔의 의미를 캄보디아 해외봉사로 전파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금탑프랜차이즈
〈청담동말자싸롱〉 중소기업청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청담동말자싸롱〉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15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 〈청담동말자싸롱〉 최성수 대표는 “전국 매장 240여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장에만 급급해 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존 매장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우수프랜차이즈 선정에 힘입어 앞으로 본격적인 중국사업 확장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또봉이F&S
〈또봉이통닭〉 '2016 사업설명회' 개최

옛날치킨 프랜차이즈 〈또봉이통닭〉이 오는 1월 13일 오전 11시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장에서 '2016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시 겪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답변, 기존 창업자들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과 사업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한다. 또한 여성창업, 부부창업, 관리형창업 등 맞춤형 창업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으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본사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주)제너시스BBQ
〈왕푸집3.3〉 안정적인 고깃집 창업으로 화제

(주)제너시스BBQ에서 심혈을 기울여 론칭한 〈왕푸집3.3〉이 안정적인 고깃집 창업으로 인기몰이를 달리고 있다. 〈왕푸집 3.3〉은 (주)제너시스BBQ의 자체 연구소인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육즙을 보존시킴과 동시에 식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삼겹, 통목살의 두께를 찾아냈고 국내산 프리미엄 등급의 고기만을 고집,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감칠맛과 풍미를 전달하고 있다.



(주)할리스에프앤비
〈할리스커피〉 '리얼 벨지안 허니' 2종 출시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가 출시 한달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잔을 돌파한 '겨울 시즌 초콜릿음료 4종'의 인기를 이어 나갈 초콜릿음료 신제품 '리얼 벨지안 허니' 2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리얼 벨지안 허니' 2종은 '리얼 벨지안 허니 모카'와 '리얼 벨지안 허니 초코'로, 초콜릿 파우더나 시럽이 아닌 꿀이 함유된 허니 초콜릿을 그대로 따뜻한 우유에 녹여 만들어 깊고 진한 달콤함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할리스커피〉 크리스마스 비주얼 케이크로 '초콜릿 퍼지'와 '화이트 포레스트'를 추가로 출시했다.

BRAND NEWS



(주)제너시스BBQ 〈BBQ〉‘도리화가’ 시사회 고객초청 이벤트 진행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지난해 11월 28일, 왕십리 CGV에서 ‘도리화가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필 감독을 비롯해 배우지, 류승룡, 송새벽, 이동휘 등 ‘도리화가’의 주연 배우들이 참석해 시사회장이 더욱 빛이 났고, SNS 등을 통해 당첨된 250명의 〈BBQ〉고객에게 무대인사를 전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BBQ〉의 모델인 배우 수지가 등장해 함께 참석한 배우들과 함께 초청된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주)도드람 〈도드람〉연말 화식 지원 페이스북 이벤트 개최

한돈 대표 돼지고기 브랜드 〈도드람〉은 삼겹살 전문점 〈구이가〉와 함께 직장인들의 연말 화식을 지원하는 ‘최고의 팀워크를 뽐내라!’ 페이스북 이벤트를 지난해 12월에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의 화식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도드람한돈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됐으며 최종 당첨된 10개 팀에게는 삼겹살 전문점 〈구이가〉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식상품권 20만원권을 제공했다.



(주)커브스코리아 〈커브스〉SBS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제작 지원

여성전용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주)커브스코리아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20분 첫방송을 시작한 SBS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 ‘마녀의 성’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돌싱이 된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세 여자가 한 집에서 좌충우돌 생활하며 갈등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제작 지원에 나선 (주)커브스코리아는 극 중에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여성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하는 〈커브스〉만의 차별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주)디딤 〈마포갈매기〉뉴욕 맨하탄점에 이어 미국 LA점 오픈

주식회사 디딤의 〈마포갈매기〉가 긴 준비 끝에 미국 LA점을 오픈했다. 〈마포갈매기〉LA점은 뉴욕 맨하탄점에 이은 두 번째 매장으로 뉴욕 맨하탄에서 이미 검증된 매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LA에 매장을 오픈한 것. 〈마포갈매기〉LA점은 약 70평 100석 규모로, 한국적인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국내 매장과의 동일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갖췄다. 올해 초엔 미국 라스베이거스점도 추가로 오픈 할 예정이어서 미국 공략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오 마이 비너스’ 제작 협찬

〈엔제리너스커피〉가 전속모델 신민아와 소지섭 주연의 KBS2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를 제작 지원한다. ‘오 마이 비너스’는 열쌍에서 몸짱으로 역변한 신민아와 지·덕·체·미·재력을 갖춘 5중 퍼펙트남 소지섭 그리고 정겨운, 유인영 등 네 남녀가 그려내는 헬스 힐링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오 마이 비너스’ 제작 지원을 통해 매장을 촬영 장소로 제공하고, 신민아의 모습을 통해 겨울 신제품 및 원두 우수성을 알리는 메신저로 담아내고 있다.



한국피자헛(주)
〈피자헛〉 크리스마스 맞이 대형 피자트리 전시

〈피자헛〉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광장에 2.65m 높이의 대형 ‘피자헛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시했다. 이번엔 열린 전시는 ‘2015 무역센터 겨울축제 (CoexWinter Festival)’을 통해 진행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피자 트리와 함께 귀여운 루돌프 조형물을 배치해 따뜻하고 친근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피자 트리 앞에는 가족 및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료 사진 기기도 설치했다.



(주)쥬스푸드
〈쥬스떡볶이〉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 우수상 수상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쥬스떡볶이〉 가맹본부인 (주)쥬스푸드가 가맹본부 부문에서 우수상을, 〈쥬스떡볶이〉 이수역점이 점포 부문에서 역시 우수상을 받았다. 쥬스떡볶이 관계자는 “에너지는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BPR
〈바पुर리〉 크리스마스 맞이 사은 이벤트 실시

프리미엄 숯불김밥 〈바पुर리〉에서 연말연시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크리스마스 맞이 사은 이벤트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간 진행했다. 이벤트에는 김치냉장고, TV, 아이패드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했다. 이번 이벤트는 (주)BPR의 대표 브랜드인 〈바पुर리 숯불김밥〉은 물론,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바पुर리 죽앤죽〉, 차별화된 메뉴와 원하는 토핑을 넣어 먹을 수 있는 〈바पुर리 차돌떡볶이〉까지 총 3개의 브랜드에서 함께 진행됐다.



라이스파이
답례떡 전문기업 '떡담' 라인업 강화

답례떡 전문기업 ‘떡담’이 오메기떡에 대한 인기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오메기떡을 출시하며 메뉴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오메기떡은 제주 지역의 향토떡으로 차조가루를 익반죽하여 도넛모양으로 만들어 삶아 콩고물을 묻혀 먹는 떡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떡이다. 최근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 돼 20~30 젊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이지이엔티
〈비어스탑〉 예비창업자 위한 창업설명회 개최

이지이엔티가 운영하는 생맥주 프랜차이즈 미니비어펍 〈비어스탑〉이 지난해 11월 25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어스탑〉은 ‘미니비어펍 트렌드와 성공창업 노하우’를 주제로 창업시장 분석, 점포 창업 및 계약 시 유의사항, 회사 소개 및 경쟁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생맥주 전문점 〈비어스탑〉의 창업설명회는 25일 본사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8-6 모션빌딩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NEWS LOUNGE

1월 · 2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과정

기 간	1월 21일(목)~1월 22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인 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목 적	글로벌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단계별 주요 실무지식을 학습하여 현업 적용 능력과 응용력에 대한 기술 습득을 최우선적으로 학습

제36기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

기 간	1월 26일(화)~1월 27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인 원	25명
비 용	회원사 20만원, 비회원사 25만원
목 적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해외경영 실무자 교육을 통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육성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실무에 활용하는 글로벌 진출 입문과정(1회차)

기 간	1월 28일(목)~1월 29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인 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목 적	해외 진출 기업 실무자(재직자)의 종합적인 정보(맞춤형 실무 교육) 국가별 산업, 인사, 노무 등을 제공하여 해외 진출 시 기초적인 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사업분석 결과를 반영한 사전교육 제시

제28기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기 간	2월 13일(토)~4월 16일(토)
교육장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인 원	40명
비 용	110만원 (회원사 10% 할인)
목 적	슈퍼바이저로서의 자질과 역할, 컨설팅 능력 함양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점포 마케팅 전략 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글로벌 전략 자사도입과 활용 실무(1회차)

기 간	2월 16일(화)~2월 17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인 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목 적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업에 적용 가능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직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제3기 프랜차이즈 지도사 과정

기 간	2월 20일(토)~4월 23일(토)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인 원	30명
비 용	150만원 (회원사 10% 할인)
목 적	가맹본부의 경쟁력 강화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역량 있는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양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글로벌 핵심인재 역량 고도화 과정(1회차)

기 간	2월 23일(화)~2월 25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인 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목 적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기업의 고숙련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으로 경영전략과 핵심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 제시

23기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기 간	2월 27일(토)~6월 11일(토)
교육장소	맥세스실행컨설팅 (종로구 관철동)
인 원	41명
비 용	195만원
목 적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역량 있는 프랜차이즈전문가 양성

"합격은 축하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 조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프랜차이즈 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지도사 합격자〉



강 병 찬
자격번호 : 15-02-01



안 용 찬
자격번호 : 15-02-10



김 경 석
자격번호 : 15-02-03



유 전 군
자격번호 : 15-02-11



김 성 동
자격번호 : 15-02-04



윤 여 광
자격번호 : 15-02-12



김 유 나
자격번호 : 15-02-05



이 덕 수
자격번호 : 15-02-13



김 지 연
자격번호 : 15-02-06



이 종 희
자격번호 : 15-02-12



김 현
자격번호 : 15-02-07



장 우 철
자격번호 : 15-02-13



남 송 우
자격번호 : 15-02-08



조 건 섭
자격번호 : 15-02-14



조 순 애
자격번호 : 15-02-15



홍 건 희
자격번호 : 15-02-16

〈제 9회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자격증 합격자〉

성명	자격번호	성명	자격번호	성명	자격번호
김 다 경	15-102	노 원 군	15-117	김 규 상	15-127
김 현 우	15-103	여 새 별	15-118	배 일 남	15-129
박 진 원	15-104	유 현 재	15-119	안 준 필	15-130
안 두 욱	15-105	한 성 민	15-122	임 정 섭	15-131
정 봉 수	15-110	표 기 석	15-123	강 병 찬	15-132
김 완 섭	15-112	이 큰 혜	15-124	신 현 철	15-133
정 원 진	15-113	서 영 우	15-125	강 병 규	15-13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장 대관 SERVICE

::: 작은 회의도 컨퍼런스가 된다! :::



교육장 구성 : 희망실 1(70~90명) | 희망실 2 (35~40명) | 상생실(20~25명) | 창조실(25~30명)

교육장 활용 1

프랜차이즈 관련 및 기타교육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설명회 주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육 & 워크숍



교육장 활용 2

이사회, 정기총회, 대형/미니세미나,
기획회의, 스터디, 강연, 워크숍,
직무교육, 그룹토의, 창업상담 등.



교육장 이용문의

- 상담문의 :
02.3471.8135~8
(내선2번)
- 이메일문의 :
master@ikfa.or.kr

"가맹사업을 지원하는 KFA세미나실! 즐거움을 드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2015년 10월 *October*

- 1일 2015한국프랜차이즈대상 현지실사 심사
식약처 조리식품 규격 재평가 회의
7차 경주컨벤션 TF회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미팅
국민은행 회의
- 2일 2015한국프랜차이즈대상 현지실사 심사
하남돼지집, 해외진출관련 회의
- 3일 2015한국프랜차이즈대상 현지실사 심사
제2기 프랜차이즈지도사 과정 입학식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오피스박스 15주년 기념식
- 5일 제16차 글로벌프랜차이즈포럼
- 6일 [국인] 해외진출을 위한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교육(3회차)
- 7일 [국인] 해외진출을 위한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교육(3회차)
2015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최종 심사
8차 경주컨벤션 TF회의
서울대 정창무 교수진 빅데이터 관련 미팅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대토론회(3주년 기념행사)
- 8일 [국인] 해외진출을 위한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교육(3회차)
WFC/APFC 회의 참석
- 9일 WFC/APFC 회의 참석
- 10일 제27기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입학식
WFC/APFC 회의 참석
- 12일 2015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최종보고서 정부기관 제출
- 13일 17차 사회봉사
- 15일 제8회 유통선진화포럼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서비스산업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식
- 17일 협회 산악회
- 20일 9차 경주컨벤션 TF회의
- 23일 2015 경주컨벤션
- 24일 2015 경주컨벤션
2015년 맥세스 추계 체육대회
조리학회(강병남 교수) 추계 세미나
- 27일 [국인] 프랜차이즈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전문가 양성(2회차)
제7차 정책위원회
소진공 프랜차이즈 경영마인드 멘토링 교육(전북지회)
- 28일 [국인] 프랜차이즈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전문가 양성(2회차)
- 31일 한국외식경영학회 35차 추계학술대회



* 2015년 11월 *November*

2일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 'K-Sale Day'활성화
3일	청년위원회
4일	협회임원골프 세텍 홍보팀 인터뷰
5일	소진공 프랜차이즈 경영마인드 멘토링 교육 (부울경지회) '제3회 유통산업주간' K-Sale Day 1차 TF회의 소진공 프랜차이즈 경영마인드 멘토링 교육 (부울경지회)
6일	국회 외식산업진흥 패널 참석 한국은행 서비스업중 경기동향 회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9일	KFCEO 친선골프대회
10일	[국인]해외 벤치마킹 외식 점포 인테리어 부산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사용조정위원회
11일	[국인]해외 벤치마킹 외식 점포 인테리어(2회차)
12일	소진공 프랜차이즈 경영마인드 멘토링교육 (부산지회)
14일	연세대 제28기 프랜차이즈 CEO과정 강의
17일	'제3회 유통산업주간' K-Sale Day 2차 TF회의 또봉이 통닭 사업설명회 대관
19일	제 35기 상권분석
21일	협회 산악회
24일	[국인]프랜차이즈국가별 해외진출전략(4회차)
25일	[국인]프랜차이즈국가별 해외진출전략(4회차)
26일	[국인]프랜차이즈국가별 해외진출전략(4회차)
27일	[국인]프랜차이즈국가별 해외진출전략(4회차)
28일	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29일	2015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현지실사 심사
30일	2015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현지실사 심사

* 2015년 12월 *December*

1일	제3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2일	2016년 가맹점 창업성공컨퍼런스 세미나
3일	2015년 프랜차이즈 대상 시상식 2016년 프랜차이즈 전망 세미나 및 창업설명회 개최
4일	제3기 KFCEO 졸업여행
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배달라이더협회 MOU체결식
8일	제2회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 대구경북지회 송년회
10일	부울경 지회 송년회
11일	K-브랜드 성과 확산 대전 개최
12일	프랜차이즈지도사 자격시험 및 수료식
1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파사드코리아 MOU 체결식
19일	연대 FCEO과정 수료식
21일	201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눔의 송년회
23일	서울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대상 시상식
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충북지회 송년회



NEWS LOUNGE

신규회원 현황

구분	업 체 명	브랜드명	업 종	대 표 자	신 청 일
정회원	(주)글로벌비전코리아	단거판다, 스노우후르츠	도소매업	이명복	2015.01.06
	(주)전진인터내셔널	일품양평해장국	서비스업	이권효	2015.01.06
	디비에프앤비	달봉감자	도소매업	김달현	2015.01.08
	(주)다운에프앤씨	바비박스	외식업	신정화	2015.01.15
	(주)케이비티	토스트굽는사람들	제조업	조성대	2015.01.23
	(주)크래들코리아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업	최성민	2015.01.28
	피에스피에프앤디	땡잡았다, 땡주막	도소매업	박상용	2015.01.29
	(주)루앤비	카페루앤비, 플램폼엘	서비스업	이용숙	2015.02.05
	(주)가연푸드	화동갈비	외식업	류경선	2015.02.09
	(주)이루에프씨	땡큐맘치킨, 톰파이브	도소매업	이문기	2015.02.12
	(주)음식점닥터	수제갈비	서비스업	이혜주	2015.03.16
	(주)전국장어마을	만판장	외식업	안상영	2015.05.28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외식업	오세린	2015.06.02
	(주)월빙푸드에프씨	월남쌈김상사	외식업	임영성	2015.06.15
	마야봉F&C	봉이치킨, 봉킨버거	외식업	고금식	2015.06.19
	(주)도들샘	오레시피	서비스업	노태욱	2015.06.23
	(주)디엠프랜차이즈	준의 대포차	외식업	김동준	2015.06.26
	한국하겐다즈	하겐다즈	도소매업	서홍표	2015.07.10
	(주)센트온	에코미스트	도소매업	김진구	2015.07.13
	바른창업주식회사	순남시래기	외식업	김영선	2015.07.17
	훈비네식품	훈비네김	제조업	이정숙	2015.08.06
	(주)엔조이굿	이초굿	서비스업	황정섭	2015.08.13
	(주)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	쉐프의부대찌개	도소매업	박건욱	2015.08.26
	(주)미당에프씨	하이브런치	도소매업	김홍민	2015.08.31
	(주)티엠홀딩스	제퍼커피, 쇼부	외식업	김명환	2015.09.01
	(주)디디에프앤비	디디치킨, 오롯이	도소매업	오응서	2015.09.02
	(주)홍익푸드	홍익궁중전통육개장		곽성익	2015.10.02
	(주)아라리	도이첸		최강균	2015.11.16
	오라클랜드(주)	오라클피부과		노영우	2015.11.18
	(주)참바른	굿앤닭		이창주	2015.11.20

신규 · 준회원, 협력회원 현황

준회원 현황

구분	업 체 명	브랜드명	업 종	대 표 자	신 청 일
준회원	(주)파리클라컴퍼니	파리클라라	서비스업	서근남	2015.01.23
	(주)한창이앤피	황금소	서비스업	김현숙	2015.01.28
	(주)리즈푸드	압구정리김밥	외식업	이은림	2015.02.13
	아초원	아초원	외식업	장보화	2015.08.12

협력회원

구분	업 체 명	브랜드명	업 종	대 표 자	신 청 일
협력회원	디자인쿡박스	디자인쿡박스	서비스	김제현	2015.01.06
	(주)에이씨알텍		제조업	정수철	2015.01.09
	동희(주)		제조업	김종섭	2015.01.27
	(주)데어리랜드		제조업	김낙규	2015.01.28
	(주)일진냉동플랜트		제조업	마경선	2015.01.30
	(주)서울에프앤비		제조업	오덕근	2015.01.30
	법무법인(유한)화우		서비스업	황현주	2015.02.13
	노무법인씨엔비	노무법인씨엔비	서비스업	강미혜부대표	2015.02.25
	새롬에프앤비(주)		서비스업	노영민	2015.02.25
	안암법무사사무소	안암법무사사무소	서비스업	하정우	2015.03.03
	동원F&B	동원F&B	제조업	안영후	2015.05.07
	(주)에스와이코마드		서비스업	강선영	2015.07.06
	(주)사세통상	사세	제조업	김광선	2015.07.07
	(주)포시에스	OZ Report, OZ e-Form	서비스업	박미경	2015.07.17
	(주)엔터라인	Enterpack	제조업	전병진	2015.07.20
	(주)세이프무역	투스카로라	도소매업	안태국	2015.07.23
	(주)포스코디	포스코디	도소매업	조선영	2015.08.07
	(주)에릭스	에릭스도자기, 힐링요	제조업	김종래	2015.08.20
	(주)대성산업		도소매업	박성운	2015.08.21
	세명수산(유)		서비스업	나경숙	2015.09.01
	(주)프리엠환경		서비스업	이남수	2015.09.01
	(주)엠앤엠디자인		서비스업	김원태	2015.09.09
	치어유니폼	CHEER	도소매업	임화선	2015.10.12
	Merci 컨설팅		서비스업	송영화	2015.12.18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 ·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사입니다.

혜택 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2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산업시찰 및 해외진출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혜택 8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 · TV미디어 홍보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프랜차이즈TV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혜택 3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실무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FC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슈퍼바이저 전문가,
외식경영관리사,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 10%를 할인해드립니다

혜택 9

300명 수용 가능한

교육장 임대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5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혜택 4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법률 · 세무 · 자문 및 정책 정보제공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 · 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혜택 10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혜택 5

성공 창업의 요람!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참가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혜택 11

369플라워 꽃 배달 사업

B2B 사업 혜택

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꽃배달 업체인 369플라워에서
꽃배달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 6

학사 및 석사, 장학금 등

학위 과정 혜택

가천대 글로벌프랜차이즈학 석사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세종대 FC MBA과정, 서경대 · 신홍대 직장인 학사과정,
기타 최고위 과정(연세대 FCEO 과정 추천) 등의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12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친목 프로그램 참가

임원사 정기 골프회,
준회원 · 정회원 · 특별회원을 위한 산악회 등
따뜻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7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 · 세미나 · 컨벤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13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를 위한

외환은행 대출서비스 혜택

협회 회원사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 연 3.78%, 2015년 10월 2일자 기준)
*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 발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신 청 인 정 보				
사 진 (3cm×4cm)	회 사 명		전화번호	
	브랜드명		휴대전화 (대표자)	
	대표자명		팩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대표자)	
회사주소				
홈페이지			업 종	
담당직원	이름:	Tel:	가입경로	☐ 홈페이지 ☐ 추천인() ☐ 기타()
	이메일:			
계좌정보	☐ 개인 / ☐ 법인통장		출금일자	매월 ☐ 5일 / ☐ 14일 / ☐ 28일
회 사 명			계좌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납입액	금 원(W)		협회 계좌번호	*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까.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까. 5.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까.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동의 / ☐ 미동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3471-8135~8 Fax)3471-8139 mail)master@ikfa.or.kr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월헌빌딩 2층)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안내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의 해외 진출 도우미!!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교육일정

과 목 명	교 육 기 간	인원	장소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과정	1월 21일(목)~1월 22일(금) 각 오전 9시~오후 6시 (중식제공)	25명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교육장
실무에 활용하는 글로벌 진출 입문과정	1회차 : 1월 28일(목)~1월 29일(금) 각 오전 9시~오후 6시 (중식제공)	25명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교육장
글로벌 전략 자사도입과 활용 실무	1회차 : 2월 16일(화)~2월 17일(수) 각 오전 9시~오후 6시 (중식제공)	25명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교육장
글로벌 핵심인재 역량 고도화 과정	1회차 : 2월 23일(화)~2월 25일(목) 각 오전 9시~오후 6시 (중식제공)	25명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교육장

문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02.3471.8135~8 (내선2번)

업소용 식기세척기의 표준

- 실속있는 가격
- 심플한 디자인
- 간편한 조작 디스플레이
- 국내최고 대포물살

전면 DOOR에 위치한
디스플레이어
좁은 공간에 설치하여도
편리한 조작



특허출원 : 10-2014-0096154



미직골드 Magic Gold

Magicgold-mini 세계최초 분리형 세척기

특허출원 : 10-2015-0025639

- 일체형 임펠러 적용(세척,헹굼 일원화)
- 협소한 공간에 적합
- 일반 콘센터 사용가능(단독사용 권장)
- Rinse Box를 3m이상 이격 설치가능
- 립스틱등 유지분해에 탁월



도어타입



온수형 식기세척기

MG-2012M



냉수형 식기세척기

MG-2012MH



일반형 식기세척기

MG-2012S



홀전용 식기세척기

MG-2013M

랙컨베이어타입



실시간 대용량 세척으로
적합한 식기세척기

MG-2012RC

세제류



세제



린스



애벌담금



스케일크리너



오븐크리너

제빙기



소형 제빙기류



중형 제빙기류



대형 제빙기류

눈꽃제빙기



S1-HOME



S1-3A/3W



S1-5A/5W



S1-7A/7W



SNOWING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60-1
전화 : 031-8016-0904 팩스 : 031-8017-0904

대표전화 1566-4313

www.magicgold.kr



튼튼한
사장님의 첫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장님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